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L of Theology
총장 노왈수 박사 이사장 전충현 목사
[156-8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32-57
http://www.sb.ac.kr / E-mail : bs0691@hanmail.net
Tel : 02)845-7711 Fax : 02)844-7711

JTNTV.KR 지저스타임즈 심볼

지저스타임즈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신학생 모집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주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 출구 송내역방향 200m)
대표전화:032)323-5552, Fax : 032)322-0099
H·P:010)2956-9191 이간:032)321-9109 E-mail : keyone209@hanmail.net

| 이사장 : 정기환 | 사장 : 소진우 | 발행·편집인 : 정기남 | 대표전화 : 032-672-3031
www.JTNTV.kr (인터넷 방송)
제65호 2013년 3월 30일 토요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눅24:48)」

주여! 하나님의 은사가 이 민족위에 다시 불 일듯 일어나게 하소서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할렐루야! 사망과 어둠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보혈(寶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하신 그 사랑을 따라 화목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양극화된 갈등과 분열이 팽배해 있습니다. 학교폭력, 자살, 이혼 등 각종 문제의 원인은 바로 찢어지고 상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나눠진 마음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멍에를 메고 먼저 낮아지고 섬길 때, 모두가 화합할 수 있으며 진정한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이는 어떠한 사탄의 세력이 감히 막을 수 없으며, 날마다 교회는 왕성하며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드러내며,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대국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하신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 끝은 이 시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파하는 자, 외로운 자일 것입니다. 특별히 시대의 아픔과도 같은 노숙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이때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노숙자들이 회복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북녘의 동포들과 탈북자들,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제3세계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한국교회는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부활의 생명을 끊임없이 나눠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 성장의 한계를 단번에 뛰어넘어, 10만 교회 2천만 성도의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JTN부흥사협의회 총재 이효은 목사 취임

언론부흥사협의회는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할 터



총재 이효은 목사

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이사장 정기환 목사)부흥사협의회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2013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총재 이효은 목사(화정충현교회)가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제1대 총재로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지저스타임즈(JTNTV방송) 언론부흥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담임)에서 발족되어 사장 소진우 목사를 발족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이사들과 함께 기도해 왔으며 지난 1월 25일(금)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주사랑교회(상임이사 장한국 목사)본당에서 신년하례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효은 목사(화정충현교회)를 본지 언론부흥사협의회 제1대 총재로 추대했다.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는 3월 22일 곽영민 목사(사무국장/등불교회) 인도로 총재 이효은 목사의 총재취임감사예배를 진행하여 여현관 목사(공동회장)가 기도를, 찬양가수 김홍중 집사(예솔미 찬양단 감독)가 특송을, 이사장 정기환 목사(웨스트민스터신학교학장)는 에베소서 5:15~21절을 중심으로"한국의 표준 부흥사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사장 정기환 목사는 이전에 한국교회가 급성장했던 때가 그립다면서 다시 한 번 한국교회를 깨우는 역사, 불붙이는 불씨가 언론부흥사협의회를 통하여 일어나길 힘쓰자고 했다. 또한 특별히 부흥사들의 역할은 적극적이고 담임목사의 어려운 것, 취약한 부문, 모든 것들을 보듬고 쓰다듬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한 마디를 형성하고 다시 한 번 성장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면서 부흥사의 사역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또한 편집이 잘되어 있는 신문과 방송을 앞세워 좋은 인맥들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5대양 6대주에 나아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 시대의 부흥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를 잘 붙잡고 나가는 승리의 여호와닛시의 부흥사협의회가 바로 본지 언론부흥사협의회라고 했다. 그 기회를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부흥사협의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했다.



이어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신문방송과 언론부흥사협의회가 국내외적으로 60여 지사를 두고 운연하는 신문방송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언론부흥사협의회가 되기를 격려하고 총재로 취임한 이효은 목사를 축하하며 축사를 전했다.

이어서 한국기독교경목총회 총회장 허 식 목사는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총재로 취임한 이효은 목사를 크게 환영하고 축하했다. 2면에서 계속=>

사설

부활절과 3·1독립 운동의 날

3월 1일은 일본의 압제로부터 독립되기위해 3·1운동을 벌인 3·1절과 3월 31일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다. 그러고 보면 3·1 독립운동과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 무관한 것이 아닌가 보다. 1910년 한일 합방이후 일본은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간섭할 뿐 아니라 언어도 이름도 다 빼앗아 가려고 하였으며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자인 한글마저도 없애려고 하였던 것이다.

말도 이름도 글자도 없앤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치 아니하셨다. 16인의 기독교인 대표와 함께 33인의 민족대표가 주동이 되어 독립운동한 것이 즉시 해방되지는 않했다. 할지라도 1945년에 우리로 해방을 맞게 하셨으니 36년만에 독립 즉 해방된 민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해방을 맞이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죄악으로 멸망 중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위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3일만에 부활하셨다. 독립도 부활도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은 나라없이 2천년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아 세계에서 히브리어를 죽은 언어로 여겼다. 만일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지금까지 압박을 당하고 있었다면 한글은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나라에서는 3,1절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며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을 참으로 귀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독립운동 없이 독립이 어찌 오며 주님의 부활 없이 기독교가 어찌 생겼을까?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는 3,1절이나 부활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년의 3월1일은 우리민족에게 그리고 3월31일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날임을 기억하고 부활절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박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항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떠나서는 역사를 기록 할 수도, 진행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은 나라이다. 불교 천년, 유교 오백년의 역사를 자랑하지 말고 태초에 예정된 우리나라를 세계에 우뚝 세워 미전도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의 보다 신선한 개혁과 함께 부활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는냐?" (요한복은 25장 25,26절)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총회

총 회 장

지태영 목사
한빛전원교회

총 장

노왈수(D.R.E) 박사

부총회장

이재성 목사
신천교회

부총회장

박종선 장로
동천교회

서기

김동민 목사
창대교회

회록서기

김일수 목사
동신교회

회계

김인근 장로
숭덕교회

부회계

최명철 장로
성산교회

시찰부장

엄광일 목사
한사랑교회

시찰부부장

박점수 장로
인천교회

선교부장

손종필 목사
늘푸른교회

선교부부장

김영대 목사
영암교회

선교부부장

김은태 장로
동천교회

교육부장

강 철 목사
대천교회

교육부부장

서명범 목사
공덕교회

고시부장

지태일 목사
새빛중앙교회

재단부장

추영조 장로
신천교회

재단부부장

한명학 장로
대천교회

재판국장

윤정현 목사
해맑음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총회(순장)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156-8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32-57 Tel : 02) 845-7711 / Fax : 02) 844-7711
Home page 문의 : 041) 853-9966 / E-mail : lov153@naver.com

JTN부흥사협의회 총재 이효은 목사 취임

1면에 이어서 계속

그러면서 총재 이효은 목사의 부친께서는 전북부지사를, 형님은 숭실대 총장을 역임하셨고, 또한 이효은 목사님은 소문난 효자요, 내조하시는 사모님도 효성스러운 효부로서 소문이 나 있다며 격려했다.

또한 허 총회장은 축사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복지시설이 세워지는 것, 영적단체가 세워지는 것은 그 시대의 민족이 축복이라면서 이제 민족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부흥발전을 위해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본 신문방송 언론부흥사협의회가 잘 감당해 줄 것을 믿으며, 이 일에 더욱 충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했다.

더불어 아름다운 신문, 생명력 있는 지저스타임즈 신문은 너무 아름답고, 정신이 살아있다. 신문 다운 신문, 생명력 있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신문이요,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한국교계의 신문들 가운데는 내용은 없고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마치 만화책을 보는 것 같고 종이가 아깝다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가 주님의 복과 성령충만한 역사가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총재 이효은 목사는 취임사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편 18편1절을 봉독한 후 지저스타임즈와 언론인부흥사협의회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했다.

이 총재는 21세기의 주님오실 재림을 외칠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령주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신학이 세계에 나가게 되었고, 또한 우리 한국은 5만 교회 10만 교역자 1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기도드리고 있다. 한국 사람이라면 새벽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가장 큰 영적 자산이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으니 오늘 기도하는 곳에 강력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3대째 믿어오면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며, 같이 더블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이며, 사실 합동측 신대원에 다니면서 언론에 관심이 있어 편집국장을 지내었고, 그래서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에 힘을 보태야겠다는 심정으로 총재 수락을 했다. 그래서 디딤돌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저의 평생의 삶에 생활에 신앙의 철학이라고 했다.

또한 이효은 목사는 언론부흥사협의회 지저스타임즈를 통해서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일으키고 성경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 있고, 성경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도 머물 수 있는 철저한 성경 제일주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지저스타임즈가 나아갈 기본 방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혼자는 힘들지만 둘은 감당이 되고 삼겹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직 예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렇게 설교로, 기도와 축사를 맡아주신 동역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또한 하모니카 합주로 찬양을 올리신 여성 하모니카 합주단을 격려하고 5만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 여성 하모니카 합주단이라며 자랑했다.

이날 예배위원은 인도 곽영민 목사, 기도 여현관 목사, 특송 김홍중 집사, 설교 정기환 목사, 축사1 이범성 목사, 축사2 허 식 목사, 취임인사 총재 이효은 목사, 취임패 증정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총재 이효은 목사는 부흥강사단과 임원들에게 임명패 및 임명장을 전달하고, 화정충현교회의 여성 하모니카 합주단의 축가, 특별기도와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가 광고를, 총재 이효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중식을 마친 후 이사회가 개회되고 신문과 방송, 부흥사협의회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토의를 갖고 4월부터 인천에서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집회를 갖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협의회 1차 강사단 조직

◆총재 : 이효은 목사(화정충현교회), ◆부총재 : 정기환 목사(웨스트민스터신학교학장/이사장) 정대성 목사(강남복된교회/부이사장), 곽동훈 목사(행복의집 원장/개신대원 교수),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상임이사), ◆연수원장 : 소진우 목사(예복교회/본지 사장), ◆자문 : 박양우 목사(중부권 지사장), 이범성 목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허 식 목사(한국경목총회 총회장), 최순길 목사(수목원교회/본지 논설위원), 서영웅 목사(퓨리탄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본지 상임이사), ◆상임회장 : 홍항표 목사(한경총 사무총장), 박동호 목사(한보협 사무총장), 박수영 목사(행복샘교회), 최낙현 목사(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교회), ◆강사단장 : 박수영 목사, ◆사무국장 : 곽영민 목사(등불교회/세주부협 대표회장), ◆실무회장 : 여현관 목사, ◆공동회장 : 주은총 목사(주은총기도원 원장), 정성준 목사(벧엘교회), 임요한 목사(예수재단 단장/사회부 부장), ◆총무 : 김홍중 집사(예솔미찬양단 감독), ◆회계 : 유윤주 목사(조예/교정선교회)등이다.

한편 문화부 기자 박종만 강도사(인천), 사회부 기자 임요한 목사(부장)를 본 신문방송 기자로 사령했다.

차별금지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3월 1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소강당에서는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종편대) 주최로"차별금지법(안)의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종편대는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등 5개 단체와 각 주요 교단 총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악법'의 소지가 있다면 그 차원은 다르다"고 전제하고,"이번의 차별금지법은 '신선한 과일 바구니 속에 썩은 과일'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박 목사는 또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철폐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 김봉준 목사는 차별금지법의 배경과 의원 발의 현황에 대하여,"유엔 인권 이사회가 지난 해 10월 〈인권사항 정기 검토(UPR)〉시에 한국정부에 70여 가지 항목의 개선을 요구했는데, 심지어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할 정도이며, 이를 받아서 지난 해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였고, 정부는 올해 2월 5일 UPR의 권고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으며, 곧 이어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하였다.

또 종편대 총괄간사인 박종언 목사는 법안에 대한 설명에서, 차별금지법은 절차상 문제, 내용상 문제,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절차상 문제는 '공청회'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야당만이 입법발의한 점은 국회에서도 '합의'가 안 된 것이며, 내용상 문제는 '임신 또는 출산의 문제' '종교의 문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문제' '전과의 문제' '성적 지향, 성정체성의 문제'가 교육 현장과 사회근간을 흔들 수 있고, 특히 종교의 문제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사이비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 이슬람교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적 행태를 보여도 이를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법적 문제에서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행복추구권의 제한(헌법 제10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상임회장 유만석 목사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와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대책으로는 "정치권 방문, 국회공청회, 지속적 철폐 캠페인, 지역의원 설득과 공론화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 기자의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 문제 등 민감한 문제만 빼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법 자체를 철폐하라'는 것인지 의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이병대 목사는 "이 법안을 철폐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을 금지하고, 심지어 처벌하는 조항까지 들어 있기에, 굳이 입법이 불필요하며, 또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들이 이 법을 만들게 됨으로 인하여 강화될 것이기에 반드시 철회되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교계 주요 언론사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교계 지도자들도 다수가 참석하여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자리가 되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나, 심각한 역차별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일부 조항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 대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와 전과자로 만들 것으로 여겨, 상당히 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한기총 내방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제1차관은 26일(화) 오후 3시 30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내방하고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문체부 강태서 종무 2과장과 한기총 부총무 윤덕남 목사, 도용호 목사가 배석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관이 되신 것을 축하하고, 한기총 방문을 환영한다"며 "제1차관으로서 문체부 업무를 잘 관장하시고, 특별히 장관님과 함께 대통령을 잘 보필해 주셔서 5년 재임동안 원활한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조현재 제1차관은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문체부는 한국기독교의 대표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숙자 정착 방안'과 'LA 이민 110주년 기념대회'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조현재 제1차관은 "노숙자 문제의 경우는 여러 정부부서가 함께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문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정기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1개 지사 / 해외 25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소진우 목사 2012년-2013년 성회일정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월
2-4 천성교회(김영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연원장)
9-11 온사랑교회(최태식목사)
13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신성교회(정대호)
19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3-2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9 예제교회(류준모목사)
30-1/2 흰돌교회(송우종목사)

2012년 2월
6-9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12 예수소망교회(신동식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3-15 신갈장로교회(이광수목사)
16 성산수양관(윤호균목사)
19-22 평강교회(박성주목사)
27-29 증평평강교회(고영철목사)

2012년 3월
축복대심방
5-7 수원교회(강성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2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012년 4월
2-4 하예성교회(강대종목사)
5-6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9-10 정기노회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6-18 동탄제자들교회(이석원목사)
23-25 주사랑교회(김주환목사)
27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012년 5월
3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7-9 우리교회좋은교회(이평찬목사)
13-16 성신교회(손양도 목사)
21-24 광음교회(김동기목사)

2012년 6월
3-6 주찬양교회(윤병구목사)
7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12-14 베데스다교회(허영혜목사)
17-30 2주연속심야대성회(예복교회)

2012년 7월
2-5 사명자영성원(송요섭원장)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9-10 신학생여름세미나
23-26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012년 8월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8-10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1-1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0-23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27-30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012년 9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3-5 주우리교회 (이황규목사)
10-12 새암교회(김병식목사)
17-20 교 단 총 회
24-26 일신제일교회 (천창대목사)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012년 10월
8-10 신일교회(정병수목사)
12 한얼산기도원 (이영금원장)
15-16 정기노회
19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22-25 진리교회(송대규목사)
26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29-31 검단지역기독교연합성회(회장·한신현목사)

2012년 11월
3 주향기교회(김홍수목사)
5-9 선교지방문
11-14 동서울교회(라계동목사)
19-21 경천교회(이원경목사)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6-28 예수비전교회(이승엽목사)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10-15 필리핀선교대회
17-19 예원교회(한규식목사)
2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13년 1월
1-3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7-9 장암성결교회(강석전 목사)
10 강남금식기도원(김성광 원장)
14-16 길신교회(김동한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1-23 참좋은교회(기갑상 목사)
28-30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013년 2월
1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5 참사랑교회(강신조 목사)
4-7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1-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20 광정성결교회(남봉우 목사)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2 임마누엘기도원(이수영 원장)
25-28 비젼교회(조정현 목사)

2013년 3월
축복대심방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3년 4월
1-3 광릉내교회(김상용 목사)
8-11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6 정기노회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주우리교회(이규황 목사)

2013년 5월
6-8 은혜교회(유권재 목사)
11 주향기교회(김홍수 목사)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3-15 일신제일교회(천창대 목사)
20-22 인천은혜교회(백덕기 목사)
27-31 선교지방문

2013년 6월
3-5 나눔애교회(최종덕 목사)
9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0-12 온사랑교회(최태식 목사)
17-19 성산교회(이기재 목사)
24-27 진주기도원(김신홍 원장)

2013년 7월
1-5 신학생여름특별세미나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7-20 2주연속특별심야기도대성회
(예복교회 : 담임 소진우 목사)
22-24 은광교회(추영석 목사)

2013년 8월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8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2-15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9-22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6-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2016년 서울 개최 '그교협 세계대회' 발대식 열어

대회장에 이강평 목사 등 대회 조직 구성

2016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그리스도의교회세계대회' 발대식이 21일 오전 서울 노량진동 CTS기독교TV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대회장 이강평(세계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총회장)목사는 "대회 기간에 북한교계와 통일부의 협조를 받아 '판문점 평화기도회'를 갖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2500만 전 세계 그리스도의교회 성도들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에 관심을 갖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준비 위는 대회장단과 고문단, 자문단, 특별위원회, 실무국, 해외대표 등으로 대회 조직을 구성하고 서울 연지동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환원빌딩 6층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세계대회에는 해외 교회 지도자 2000여명을 비롯해 1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준비위원장 김탁기 목사는 "이번 대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We are one in Christ)' 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회장 김탁기 목사)와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회(회장 최제봉 목사), 그리스도의교회총회(회장 박윤성 목사) 3개 총회가 연합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동의 이야기 절대희망'이 있으며, 2001년 2월부터 전국 교회 부흥집회를 천여 회를 인도하고 있다.

예장개혁 제33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가져

정학체 총회장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할 것"을 강조



예장개혁(총회장 정학채목사)총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 예원교회(담임 정은주 목사)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었다.

이날 부총회장 김송수 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진행되고 전국장로연합회 허진국 장로가 기도를, 강북노회장 김강원 목사는 사도행전 2장1절부터 3절을 성경봉독 하고 총회장 정학채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총회장 정학채 목사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보자' 고 강조하고 금번 기도회에서 ·나라의 번영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개혁교단을 음해하는 세력 있지만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것 ·개혁교단의 정체성을 회복을 위해 ·총회중심의 하나 됨을 위해 ·전도로 되어지는 1만 교회를 위해 ·흩어진 개혁형제들의 통합을 위해 ·총회 회관건립을 위해 ·모든 대적과 영적전쟁을 위한 기도 등 6 가지 기도제목으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헌금시간이어 회계 김영수 장로의 봉헌기도와 개신대학원대학교 조경대 이사장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끝냈다.

한편, 이날 정학채 총회장은 지난 1월14일 영입된 구 전도총회의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 한기총이 이단해제를 한 것은 사람이나 연합기관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일이라며 강조했다.

박순애 전도사 초청 특별부흥성회 개최

3월 31일 ~ 4월 3일 순복음춘천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사로 '사랑' 과 '섬김' 을 실천하고 있는 순복음춘천교회(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담임: 김주환 목사)가 창립 41주년을 맞아 박순애 전도사 초청 특별부흥성회를 3월 31일(주일)~4월 3일(수) (매일 저녁 7시)까지 개최한다.



순복음춘천교회는 1972년 4월 3일 춘천 효자동 18평 2층에서 김주환 목사가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으며 이듬해 팔호광장 인근으로 성전을 이전했다. 2002년에는 만천성전으로 이전하고 2003년에는 혜민사랑의 집(대표: 조남진 장로)을 개관하였으며, 2004년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시작으로 두란노 어머니학교, 두란노 부부학교를 잇따라 개설했다.

3월 31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번 성회는 "축복받는 성도의 영적생활"이란 주제로 박순애 전도사(분당제일교회, 찔레꽃 그 여자 저자)가 "절대절망 절대희망(시 40:1~2), 눈물의 축복(시 126:5~6), 기적같은 축복(대상 4:10), 인내하는 자의 축복(욥 23:10)"란 제목으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나눈다.

이번 성회를 인도할 박전도사는 초등학교 3년 중퇴 학력으로 종합학원장(원생 700명)을 역임하였고, 전국 교도소사역(20년, 18세부터 교정위원), 의정부 교도소 정신 교육 강사, 찔레꽃예향선교회 설립자이자 대표로 섬기고 있다.

또한 KBS 아침마당, 이것이 인생이다, MBC 임성훈과 함께, 시사매거지 2580, 느낌표, 뉴스데스크 화제의 책, 뉴스투데이 '절대희망의 전도사', CBS 새롭게 하소서,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 출연 했다. 저서로는 자전에세이 '찔레꽃 그 여자', 장편소설 '푸른 솔 붉은 집',

피종진 목사 4월 국내 · 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1(월) 오후	한국기독교목회자연수원(원장 이재범 목사) ☎(032)668-3191
1(월)~ 3(수)	서울 시온성교회(임후자 목사) ☎(02)843-8885
4(목)~ 5(금)	평양봉수교회 남북부활절연합기도회 주최: (사)평화통일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진요한 목사)
7(주)~10(수)	인천 영광교회(조강수 목사) ☎(032)575-1654
8(월) 오후	한국기독교영풍회(대표회장 한명기 목사, 연수원장 이철근 목사) 장소: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02)2616-4091
9(화) 오전	감리교신학연구원(원장 박진섭 목사) ☎(02)361-9114
11(목) 오전	광명 열납되는기도원(원장 김영숙 목사) ☎(02)898-6594
11(목) 저녁	오산 아가페실림교회(채광명 목사) ☎ 010-5452-1691
	제176차 해외성회(176th Overseas Assembly)
15(월)~17(수)	대만(Taiwan) 난투로나교회(주최: Taiwan원주민선교회) ☎ 886-0960-654-552
18(목)~19(금)	대만(Taiwan) 슈텐교회(주최: Taiwan원주민선교회) ☎ 886-0960-654-552
20(토)~21(주)	대만(Taiwan) 부교회(주최: Taiwan원주민선교회) ☎ 886-0960-654-552
22(월)~24(수)	양평 할렐루야축복교회(조유식 목사) ☎(031)772-3578
25(목)~27(토)	서울 삼일교회(정화영 목사) ☎(02)931-0031
27(토) 오후	부천 행복교회(이화평 목사) ☎(032)344-3313
28(주) 오후	월드미션찬양협의회(총재 장성화 목사, 대표회장 정진희 목사) ☎ 010-7567-8291
29(월)~30(화)	홍콩(Hong Kong) [주최: 연세대학교 목회자 부흥협의회] (총재 강영선 목사, 대표회장 장향희 목사, 사무총장 김진옥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01-7770

사도영성신학원을 개원하면서



홍요한 목사
사도영성신학원장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말세지 말의 영성생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영성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관심이 되고 있다.

16세기 칼빈신학을 주장하는 장로교파와 루터의 신학을 주장하는 루터파 18세기 웨슬레신학을 주장하는 성결교단과 감리교파들 20세기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순복음 신학들로 혼잡한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개혁교회든 로마카톨릭 교회이든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지향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12제자를 택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 12제자 들은 높은 학벌이나 좋은 가문 ,부자로 살거나 큰 권세와 명성을 갖춘 직업을 가지지 안 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12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천국건설 사업을 맡기셨다. 또한 그들에게 산상보훈을 비롯한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식만 공급하신 것이 아니었고 친히 실천 하시면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주셨다. 어느 때는 굶주리기도 하셨고 핍박자들로 부터 온갖 조롱과 박해도 받으셨고 훼방자들로 부터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셨지만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항상 참으셨고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오직 사랑을 실천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활하신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서 사도들은 생명의 빛을 보았고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적 행실을 본받아 훈련과 교육을 받으며 교회의 기초석으로 준비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죄악과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는 12사도를 비롯한 120문도가 모여 있었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교회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긴 것이다. 교회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받은 빛에 대한 진리와 빛된 행실을 증거하는 가운데 구원받고 빛을 따라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강림하신 날부터 성도들이 휴거되는 날까지를 교회시대라고 부른다. 교회시대 즉 기독교 역사가 진행 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앙으로 무장된 사도들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며 가장 밝은 빛 가운데서 생활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한 성도들이 사도들이다.

왜 성령강림 시 120명 중 12사도들만 성령충만을 받았는가? 120문도들은 선한의지가 정결해지지 아니 했기에 못 받았다.

사도들의영성 특징

1. 사도들은 미래를 산 사람들이다. 2. 사도들은 마귀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3. 사도들은 실천하는 지성인이다/. 4. 사도들은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다. 5.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사도영성신학원을 개원하면서 평신도나 신학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첫 사랑을 다시 살려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데 있다.





오정현 목사 영상으로 교인들에게 사죄

박사학위가 무엇이기에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가 24일 주일예배에서 영상으로 교인들에게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관련 당회로부터 6개월간의 설교 정지를 결정 받고 충북 제천 사랑의동산에서 회개와 자숙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오정현 목사는 이날 주일예배에서 영상으로 전한 인사를 통해 통회의 심정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오 목사는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도원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며 기도의 내용을 소개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어 기도드립니다. 엎드려 눈물로 회개합니다. 박사학위가 무엇이기에 저의 잘못에 스스로 눈감아 버렸던 것이 아닌지,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의심하게 된 일이 생기게 했음을 통탄합니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명심 명심하였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이 되었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낯게 엎드려 잘못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다.

오 목사는 교인들에게는 용서를 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참회의 기도와 꼭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부디 여러분의 큰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인해 교회 어려움을 끼친 모든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오 목사는 "또한 교회의 본질적 사역을 소홀히 하였던 저의 잘못에 대해서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하여 6개월간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숙기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내고자 하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도님들께 용서를 구합니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마지막으로 "부디 주님의 몸 된 우리 사랑의교회가 안팎으로 더욱 튼튼히 세워져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새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인사를 마무리했다.



▲ 사랑의교회 전경

오 목사의 영상 인사말이 진행되는 동안 교인들 중에는 눈물을 닦는 이들도 있었고, 가볍게 흐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3부 예배 대표기도를 드린 백형선 장로는 "이번 사태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사태를) 마무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고백했다. 백 장로는 오정현 담임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을 막아달라고 기도했다. 특히 새예배당 건축의 남은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했다.

오 목사가 설교를 중단한 첫 주일예배는 총신대학원 신약학 교수인 김지찬 목사가 마태복음27장 32절~44절을 본문으로 "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가 고난은 막을 수는 없다."며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선택 여부에 따라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며 고난을 숙과 회복의 기회의 상황으로 만들 것을 강조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25일부터 30일까지 '십자가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으며, 벧엘한인교회 손인식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류응열 목사,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 등이 말씀을 선포했다.

한보협, WCC부산대회 정부의 지원 철회하라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반대, 정부지원을 철회하라는 결의문 발표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한보협,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지난 3월 18일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 앞 노상에서 세계교회협의회(이하-WCC)의 제10차 부산총회를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의 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거액의 자금을 WCC 제10차 세계대회 부산총회에 지원하게 되는데 (사)한보협은 WCC 부산총회를 반대하며 정부 지원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섰으며 (사)한보협 WCC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WCC 반대 대책위원장 박동호 목사는 WCC 제10차 부산 총회에 정부에서 거액의 자금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WCC의 모체인 FCC의 주요 인물들은 공산주의 신봉자들이며 이들이 미국 청문회에서 그 정체가 들어나자 WCC로 옮겨서 FCC의 바통을 이어받아 공산주의 사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였는데 그 흐름은 지금도 진행형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인민해방운동과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들에게 거액을 제공하여 그들을 도왔으며,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일부다처제를 지지하며 퇴폐문화를 조장하는 단체에게 어떻게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줄 수가 있는지 참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고 했다.

WCC 반대 대책위원회 일동은 WCC에 정부 보조금 지원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시위를 갖고 이 사실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자 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국회위원들도 온 국민에게 알려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결 의 문 -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의 제10차 부산총회 개최를 즈음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체육관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를 대하는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의 WCC 반대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촉구하는 바이다.

- 다 음 -

세계교회협의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교회의 본질과 지향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사상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적단체로서,

첫째 : WCC는 기독교의 사명, 곧 인류가 복음으로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태동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해방신학과 산업선교라는 명목으로 노동현장에 투입하여 자유 민주주의 제도에 투쟁과 분열을 획책한 지난 역사가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명하여 주고 있으며, 현재도 좌익게릴라들을 지원하는 등 그 흐름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둘째 : WCC는 동성애와 일부다처제를 지향하는 단체이다. 이는 퇴폐를 조장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 한 남자에게 있어서 한 아내가 인륜이고 타고난 사람의 본성이거늘, WCC는 인권이라는 명목을 앞세워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아내와 남편으로 삼는 허용을 주장하기에, 이는 퇴폐문화를 조장하는 것이며, 인류의 법질서를 피괴하는 동시에,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는 단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실체를 가진 WCC의 제10차 부산 총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도리어 대다수는 반대하며, 일부 기독교단체가 유치, 개최하는 것에 대한 민국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곧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고 퇴폐문화를 조장하는 이적단체를 돕고 활성화 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임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해당부처는 WCC 부산총회 지원정책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시 는,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의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시하여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향하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각 시민단체가 연대한 시위에 직면할 것이며, 이를 결의하는 바이다.

주후 2013년 3월 18일
(사)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WCC 반대 대책위원회 일동



부활절연합예배 설교자 104세 방지일 목사 선정


방지일 목사

31일 '2013년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설교자로 방지일 목사가 선정됐다. 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는 11일 연합예배 설교 및 순서자를 확정 발표했다.

방지일 목사 한국교회 최고령 목회자 방지일 목사가 설교자로 선정되게 된 데에는 소속 교파가 고려되었다기보다는 올해 104세로 한국교회 최고령 목회자이며, 교파를 초월하여 모두가 존경하는 한국교회 원로라는 점과 가장 역동적인 한국교회 역사의 증인이라는 점이 선정의 결정적인 기준이 됐다.

방지일 목사는 1911년에 평북 선천에서 출생하였으며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부터 57년까지 중국 선교사로 활동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북한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으나 해외 언론에서 최후까지 남은 기독교 선교사로 소개되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부활절 준비위원회는 "그 동안 설교자 선정기준으로 연합예배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됨으로 방 목사와 같은 원로들의 말씀선포를 청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면서 "올해부터는 부활절 준비에 참여하는 교단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방지일 목사를 설교자로 모셨다"고 밝혔다.

예배인도는 권태진 목사, 성만찬 집례는 김영헌 감독과 엄현섭 목사 그리고 축도는 박만희 사령관이 각각 맡았다.

한편 준비위원회는 공동대회장으로 각 교단의 대표들을 세워, 권태진 목사(장로회), 김영헌 감독(감리회), 김근상 주교(성공회), 엄현섭 목사(루터회), 박만희 사령관(구세군), 고흥식 목사(침례회), 박현모 목사(성결교), 이영훈 목사(기하성), 이동춘 목사(복음교회)가 준비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1장25절)를 주제로하고 '교회, 작은 자들의 이웃'을 표어로 선정했다. 준비위원회는 이에 맞는 주제해설과 예배문, 공동으로 사용할 포스터 등을 제작 배포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CI와 2013년 부활 찬양을 별도로 제작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천성교회

담임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구 분	시 간
새벽기도회	새벽 5:0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P 010-8585-9137

주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매월 3째주 (월-목) 정기 성회
매일 밤 10시 기도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세요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2013년 1학기 수강생모집

김동기 목사
▶명품속독 지도사 과정◀
수강신청문의: 010-9119-7661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 수 영 목사
• 행복샘전인치유센타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강사단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 예 배 시 간 안 내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 장 로 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00-18(신천동)
☎ 053-752-8238 010-8537-8291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심령부흥 성회

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 예장(백석) 인천노회 소속
◆ 등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에녹부흥사관학교 대표
◆ 지저스타임즈부흥사협의회 사무국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본사 사무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http://kmission.onmam.com / cafe.daum.net/kmission
☎ 032)891-0651, 010-2080-0651

에녹 부흥 사관학교

교장 김명옥 목사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13:00
◈ 내용 : 바이블시티 맥 잡기, 부흥사 연수
◈ 장소 : 할렐루야 교회 (http://cafe.naver.com/swhc)
☎ 문의 : 010-7707-4319, 010-2080-0651
교재 및 식사 무료 / 회비 없음

대표 곽영민 목사
서울 양천구 신월1동148-19(2층) ☎ 010-7707-4319, 010-2080-0651

국제 자연치유(전인치유)선교(학술)회 세미나 열어

강사 차상기 박사 초청 "리딩 바디 전도법 공개"



국제 자연치유 선교회(선교 회장 허 식 목사)는 지난 3월 19일(금)오전 11시부터 오후3시까지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배방감리교회(임기석 담임목사/ 운영이사장)에서 리딩 바디 전도법 공개세미나를 가졌으며, 이날 세미나의 목적은"전도를 위한 자연치유 전문 사역자 양성"이었다.

세미나에 앞서 이백희 목사(사무국장)의 인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이홍만 목사(운영이사)가 기도를, 임기석 목사는 로마서 1장 14절을 중심으로"빛진 자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홍항표 목사(한국경목총회 사무총장/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가 축사를 전하고, 김창룡 목사(국제 문화예술 선교 신학원 학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아울러 선교회장 허 식 목사는 인사 및 광고를 했으며, 공제정 목사(고문)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어진 특강에서 운영이사장 임기석 목사의 사회로 강사 차상기 박사(임상병리사, 한의사, 교육원장)는"리딩 바디 전도법"공개세미나를 가졌다.

또한 현대인과 성인병에 대해서 허 식 목사(한경총 총회장, 대체의학 연구원장)의 특강이 이루어져 참석자들로 많은 도전을 갖게 되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공개 세미나의 특징은 1. 전도가 쉽게 이루지고, 2. 쉽게 마음 문을 열수 있다는 것. 3. 쉽게 접근 할 수 있으며, 4. 쉽게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5. 쉽게 교회 인도할 수 있다는 것, 6. 공감대를 쉽게 이룰 수 있고, 7. 전문치유 사역자가 되어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다 것, 8.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 자연치유 선교회는 2차 세미나를 오는 3월 28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자연치유 사역 전문 교육이 충남 아산시 배양면 세교리 배방감리교회(임기석 목사) 실시한다.

문의 : 010-5450-8406, 010-6641-8291, 016-348-6374

미래목회포럼, 교회와 지역이 하나되는 마을공동체운동 전개

복지서비스의 모든 것을 나누는 컨퍼런스 연다


오정호 목사

뉴타운건설로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을 하고 복음화를 앞 당 기 려 는 '마을공동체운동'을 한국교회가 앞장서 전개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체의 모델이 되고 있는 '예수마을교회'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의 모든 것을 나누는 컨퍼런스를 가진다.

미래목회포럼이 교회와 지역이 하나되는 공동체 운동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컨퍼런스는 '교회는 꿈을 품고, 마을은 춤을 춘다'라는 주제로 3월 28일 서울 예수마을교회와 4월 4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교회를 열어 지역의 중심이 된 복지모델 교회들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번 행사는 복지교회의 사례를 대형교회와 중형교회 중소형교회 등 각 형편에 맞게 발표되며 예수마을교회, 새로남교회, 오산평화교회, 송촌장로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부천새롬교회 등의 사례를 현장감 있게 소개하며 매뉴얼을 제공하게 된다.

사례발표로 장학일 목사 (예수마을교회)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커피전문점과 마사지와 침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해피사랑방, 노인들의 안식처 노인복지센터, 무료가정법률 상담소, 창업대학 등) '청소년 문화마을'이라는 사단법인까지 설립 ,꿈터 어린이집, 신당 5동 어린이 집,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등을 세워 운영, 재활을 위한 노숙자교회 운영, 무료의료봉사, 기초수급대상자 중식제공, 무료 백내장 수술, 김장김치 나누기, 마을 음악회 개최, 어린이 날 가족축제 열기 등 지역사회변화전략을 소개한다.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는 연인원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전의 명소 새로남카페운영,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관과 농구장개방, 농구대회를 열어 청소년 장학금을 지급, 지역의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영어캠프 진행, 새로남서점오픈, 다양한 문화 행사로 지역사회 섬김전략을 공개한다.

최석원 목사(오산평화교회)는 중·소도시 오산지역의 모든 세대를 섬겨 브랜드교회로, 지역을 공략하는 영유아 학교로부터~죽음예비학교까지(영어교실- 독서스쿨-예절범절 교육-부모학교-부모치유상담스쿨-소외계층청소년치유상담-아버지학교-장애인글로벌리더스쿨-해피엔딩스쿨)의 전과정을 소개하게 된다.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는 개신교계에서 '효자 교회'로 소문난 송촌장로교회의 노인을 대상 실버대학, 지역노인들을 초청하는 효잔치 '행복축제', 매주 목요일마다 경제적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도시락 서비스와 지체장애자 목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는 담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대출해 주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운동 '해피뱅크'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를 통해 노인 복지 홈과 주야간보호센터 등 운영, 노인들의 취업 알선과 직업교육, 교회 내의 전문 인력활용 파주노인복지회관과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의 노하우 등 전략을 소개 한다.

새롬교회(이원돈 목사)는 신나는 가족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운영 등 각 형편에 맞춤으로 다양한 복지사역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 오정호목사는 "교회는 사회복지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룰 때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때부터 지역주민들이 교회를 친구로 여기게 된다"고 충고했다. 오 대표는 "사회복지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중 하나이며, 이것을 위해 한국교회의 인식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신청은 ☎ 02-762-1004 홈페이지 www.miraech.com



제1회 한기총 대표회장배

한국기독교계 기자 탁구대회 성황

1등 여운영 국장 2등 송상원 기자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에서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언론협회(회장 윤범석 국장)에서 주관한 제1회 한기총 대표회장배 한국교계 기자 탁구대회가 21일 오전 10시부터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계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기자들과 함께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가을에 또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다 더 유대를 돈독히 하며 한국교회 발전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전했다.

선수대표 한규섭 목사의 기도와 한국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윤범석 국장의 대회선언으로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간 이번 탁구대회는 한국교회 언론인들의 단합과 친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탁구대회는 한국 교계언론 소속기자 50여 명과 한기총 직원들이 참석해서 개인전과 복식전으로 진행됐다. 개인전의 경우 조별 풀 리그(11점 3세트)로 상·하위 2차 토너먼트로, 복식전은 당일 추첨을 통해 조편성을 해서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또한 행운권 추첨 등 푸짐한 상품과 풍성한 먹거리 등 참석자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한국기독교언론협 회장 윤범석 국장(크리스천헤럴드)은 "준비위원장 등 대회 준비에 애써준 모든 임역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언론인들의 단합과 친교에 좋은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이런 모임을 자주 마련해, 한국 기독교 언론계가 하나 되고,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일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탁구대회 우승은 1등 한기총 여운영 국장, 2등 송상원 기자, 3등 이대웅 기자와 안영신 기자, 4등은 한기총의 배인관 사무총장과 윤원진 목사, 이종원 목사 그리고 정진희 기자가 차지했다.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꿈꿉니다"

굿피플, 굿피플 의사회' 창단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창명)은 오는 4월 7일(일) 오후 5시, 여의도 렉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굿피플 의사회 창단식'을 갖는다.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활동을 실시하고 전 세계의 질병과 아픔을 줄이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 의료인들로 구성된 '굿피플 의사회'를 창단하고, 열악한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내외 소외 계층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의료복지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의료복지실천의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사회구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굿피플은 지난 1월부터 굿피플 의사회 소개서 및 가입신청서를 발간하여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에 배부하였으며 현재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 약 20과목에서 85여명의 전문 의료인들이 가입 신청한 상태다.

한편 굿피플 의사회를 이끌어 갈 최경숙 회장(동서산부인과의원 원장)은 그 동안 헌신적인 의료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 15일 대통령 국민포장을 수상한 바 있다. 최경숙 회장은 지난 1993년부터 한센병 환우를 위한 의료봉사에 앞장서 왔으며 탈북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쪽방 및 노숙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정기적인 의료캠프를 펼쳐왔다. 또한 이라크, 스리랑카, 인도 델리, 케냐 빈민촌 등을 방문해 의료 봉사를 펼쳐왔으며 굿피플 재난의료팀에 함께 참여해 적극적인 사랑의 인술을 펼치는 등 나눔실천에 앞장서왔다. 문의 02)783-2291

"할렐루야! 구주 예수 부활하셨네"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본 단체는 언론부흥사협의회 단체이며 기독 언론인의 사명과 한국교회와 기도원, 농어촌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외치는 사역자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본 언론부흥사협의회는 건전한 초교파 부흥사 단체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감당에 뜻을 같이할 부흥사를 정중히 모실 것입니다.

총재

이효은 목사
화정충현교회

대표회장

정기남 목사
지저스타임즈

부총재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연수원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
등불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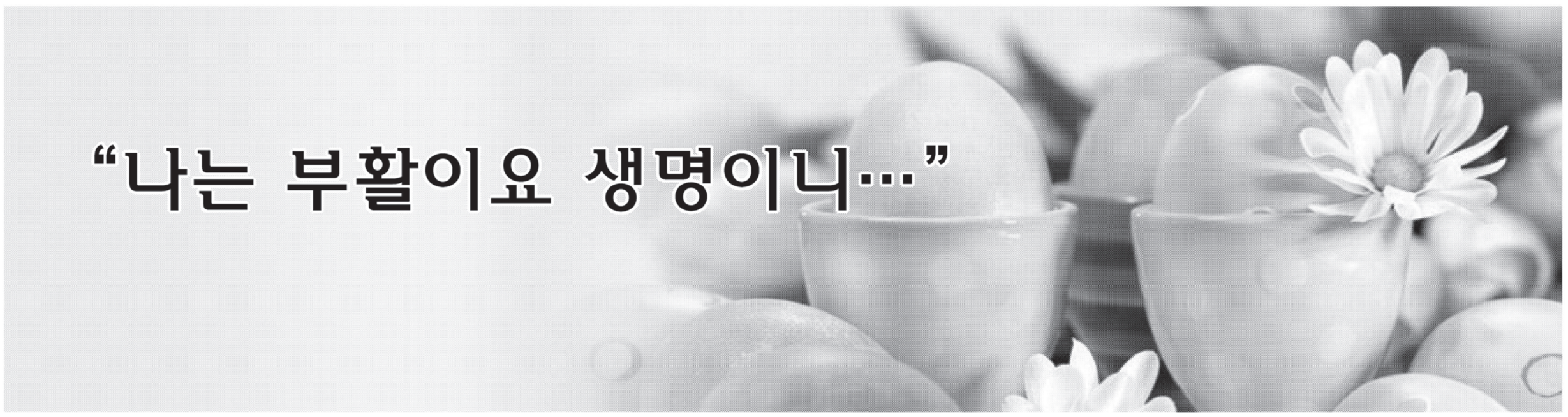
상임회장

홍항표 목사
경목총회



◆총재 이효은 목사 ◆부총재 정기환 목사, 정대성 목사, 곽동훈 목사, 장한국 목사 ◆연수원장 소진우 목사 ◆자문 박양우 목사, 이범성 목사, 허 식 목사, 최순길 목사, 서영웅 목사, 박한규 목사 ◆상임회장 홍항표 목사, 박동호 목사, 박수영 목사, 최낙현 목사, 김동기 목사, 권세능 목사 ◆실무회장 여현관 목사 ◆공동회장 주은총 목사, 정성준 목사, 임요한 목사, 이기학 목사, 김명옥 목사, 한충희 목사, 전진성 목사, 강신숙 목사, 강사단장 박수영 목사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 ◆총무 김홍중 집사 ◆회계 : 유윤주 목사

지저스타임즈(http://www.jtntv.kr)
경기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3(대운빌라 202호)
대표전화) 070-8230-0034, 032-672-3031(팩스겸용)
대표이사:010-5468-6574, 사무국장:010-2080-0651
e-mail: jtpress@hanmail.net,웹하드: I.D-cpjkr, P.W-km1122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승리의 부활
(본문 고전15:54~58절 말씀)



이효은 목사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총재

축구 시합에서 마지막 45분에 결승골을 넣어 승리하는 거야 말로 참으로 통쾌하고 멋진 장면이 아닐까요? 그러나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 위대한 승리는 예수님의 부활사건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 장사 지낸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고전15:55)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으며,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에게 대한 승리입니다.

(히9:14)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마귀가 완전히 패배한 날입니다.

2.예수님의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긴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선이 악을 마침내 이기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3.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 거짓을 이긴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진리가 마귀의 거짓을 이긴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4.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랑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5.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이긴 승리입니다.

본문에"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인류의 최대의 원수는 사망이요 이 죽음이란 괴물 앞에 모든 인간이 공포에 떨었으나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주와 함께 있다가 주님 다시 올 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져 승리하시기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고전 15:12-22)



정기환 목사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전원중앙교회
웨스트민스터신학교학장

예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요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이며 증오와 악독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8번이나 반복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으로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2-13절)

사람은 한번 죽으면 못 산다는 고정관념이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신앙은 있어도 부활의 신앙이 없음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두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이 동시에 보았으니 사실인 것이요(15:5-8), 그중 절반은 살아있을 때에 본서가 기록되었고 또한 목격한 바울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확인했으며, 예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친 제자들이 생명을 내어 놓고 부활을 증거 했으니 거짓말을 위해 죽는 어리석은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부활의 권능이 임하여 두려움도 슬픔도 다 물러갈 것이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2.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은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됩니다. (14-19절)

그리스도의 생애가 죽음으로 끝이었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믿음의 근본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구원 사업의 완성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타종교에서는 그 나름대로 화려한 교주의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이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나셨으니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3.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성도의 큰 승리요 기쁨입니다. (20-2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하셨으니 첫 번째의 예수님 부활은 온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요 영생의 근거가 되시니 성도의 큰 승리요 기쁨입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의 결박을 풀어주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이는 심령의 의심과 근심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며 육신의 문제도 해결 받게 되니 큰 기쁨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그러기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은 두려워 떨던 골방을 뛰쳐나와 "과연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쳤습니다. 이 엄청난 승리와 기쁨을 온 천하에 증거하고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의 삶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 식 목사
국경목총회 총회장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기쁨

부활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복음증거의 핵심이며 인간 완성의 한 형태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며 절대주권자임을 보여준 사건이다. 부활은 영생에 이르는 신령한 체질이며 전 인류의 소망이며 신앙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며 진리가 승리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기쁜 소식이며 재창조의 위대한 역사이며 믿는 성도의 승리의 깃발이다. 이같은 부활의 소망이 13만 경찰관들과 본청과 각 지방청 및 예하 경찰서와 경찰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경목위원 여러분과 섬기시는 교회위에 온 국민 여러분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사랑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범성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봄은 부활의 소망

봄은 일 년 사계절 중,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계절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 사르르 녹아버리고, 새 생명들이 대지를 뚫고 솟아나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 부활의 소식을 알리지요.

또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봄은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는 계절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없이 기쁘고 즐거운 계절입니다.

금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침체된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으로 부활되고, 이 나라가 안정과 번영으로 부활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6~70년대에는 국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고도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지만 현재 한국교회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이기주의와 자유주의에 젖어 갈등과 분열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봄바람에 새 생명이 소생하듯, 금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보수주의와 신본주의, 말씀 중심주의와 하나님 사랑제일주의로 부활되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풍김으로 실추된 위상이 부활되고, 부흥과 성장의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재갑 목사
예장웨신 총회장

산 소망되신 예수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빛으로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확증되고 증거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이자 모든 성도의 산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인 죽음에 대한 극복이자 성도의 영원한 승리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실패의 삶이 아니기에 승리의 소망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느 하나도 그 곳에 마음을 둘 수 없을 만큼 암흑의 세상에서 빛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한결같이 넘어지고, 어둡고, 절망과 다툼의 소리들뿐입니다.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세상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소식이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화해의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입니다.

희망은 절망 속에 갇힐 수 없는 법입니다. 부활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희망은 때로는 절망의 틈새에 갇히기도 하지만, 참된 희망은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에서,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희망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길 사망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 나셨느니라!"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곽순종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담임목사 최낙헌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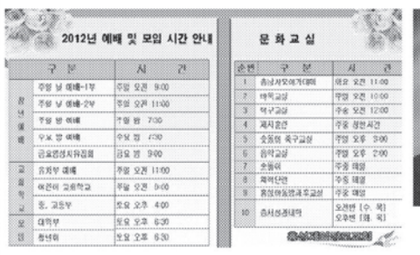
사랑.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정동진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혜망원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 서울 칼로스신학연구원 교수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오종설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예배시간안내

기관	시간	장소	기관	시간	장소
유 치 부	주일오전 9:00	4층 나사렛성전	장년부	주일오전예배 11:00	2층 대예배실
유년.초등부	주일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2:0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대예배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00	4층 나사렛성전
	주 일 오후3:30				
청년부	토 요 일 오후5:00	4층 나사렛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셀 예배	셀장대학 금요일 오전10:00,오후8:00	2층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각 셀 예배	셀 가정별			



담임 이 선 목사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 선 목사 전화 02)430-9107 . 02)3402-2714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4시까지 특별세미나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고문)

• 강의내용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 절기(레23)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3)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 대상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원 :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 강사의 저서 : 20 여종 특별할인

♣ 창석자 전원에게「언약의 무리」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겸용)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천교회
ANCH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된 교회!



담임 서정환 목사

1. 실천 목표
1. 제사장 나라 됨의 실천 목표
1) 교육을 통해서 다리 놓는 자된 교회(시126편5~6절)
2) 선교를 통해서 다리 놓는 자된 교회(행13:1~3절)
3) 섬김을 통해서 다리 놓는 자된 교회(빌4:10~20절)

2. 거룩한 백성 됨의 실천 목표
1) 주일 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신5:12~15절)
2) 말과 생각에 실수하지 않는 성도(약3:1~12절)
3)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아는 성도(롬14:1~12절)

(445-380) 경기도 하성시 안녕동 138-153
Tel.(031) 234-0511, Fax.(031) 234-7751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이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장로 : 신호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 031) 714-1426, 7236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천교회

신천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 예배	1부:09:00 (오전) / 2부: 11:00 (오전)
주일오후 예배	02:30 (오후)
삼일기도회	07:30 (오후)
새벽기도회	월~금 05:30 (오전) / 토 06:20 (오전)
부서별기도회	금요일 09:00 (오후)
새가족	12:30 (낮)
청년부	02:00 (오후)
청소년부	11:00 (오전)
초등부(1~6학년)	09:00 (오전)
유치부(6~7세)	11:00 (오전)
영아부(3~5세)	11:00 (오전)



담임 이재성 목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동 1612-7
☎ 02)859-3671 FAX 02)859-3673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제65차『주 예수 그리스도』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이단이다(사 7:14).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다수필사본계열)에는 마리아를 '처녀'(virgin)로 번역하였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열(중립사본계열)인 개역성서와 표준 새 번역에는 오리겐의 70인역을 따라 난하주에 '젊은 여자'라고 번역하였다(바른 성경은 난해 주 사용하지 않음). 동정녀 마리아를 젊은 여자로 번역 되어 짐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 하는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발로이며 하나님의 전지성을 부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처녀를 젊은 여인으로 변개시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부인하는 근원을 시작한 것이다. 동정녀탄생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2)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부인하면 이단이다(마 24:36).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짜를 번역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다수필사본계열)에서 번역한 성경들에는 '아들도 모르고'라는 문장이 없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열(중립사본계열)에서 번역한 성경에는 '아들도 모르고'라는 문장이 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심을 전하는 복음서이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서이며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서이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서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아들도 모르고'라고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부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번역 할 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므로 '아들도 모르고'라는 문장을 삭제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부인하게 된다. (원어신약성경)마 24:36; 그러나 그 날과 시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들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흠정역)마 24:36; 그러나 그 날짜와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개역)마 24:36;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개역개정)마 24: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바른 성경)마 24:36; 그러나 그 날과 시각은 결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3)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다(눅 2:33, 4:22).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다수필사본계열)에서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중립사본계열)에서는 요셉을 아버지로 기록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계열인 요셉의 가문으로는 오셨으나 요셉의 아들로는 오시지 않았다. (원어신약성경)눅 2:33; 또 [요셉과 그의 어머니]가 그에 대한 말 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흠정역)눅 2:33;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들로 인해 놀라워하더라. (개역)눅 2:33;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기이히 여기더라. (개역개정)눅 2:33;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바른성경)눅 2:33; [그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기에 대한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4)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로 그 순위를 바꾸면 그리스도론에 일대 혼란이 생긴다.

예수님이 앞에 나올 때는 인성(人性)을 강조할 때이고 그리스도가 앞에 나올 때는 영성(靈性)을 강조 할 때이다. (고전 1:1, 고후 1:1, 엡 1:1, 엡 2:20, 빌 1:1, 빌 1:6, 골 1:1, 딤전 1:1, 딤후 1:10, 2:3, 4:1).

*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로 그 순위를 바꿈

(원어신약성경)고전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흠정역)고전 1:1;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개역)고전 1: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개역개정)고전 1: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른 성경)고전 1:1;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로 그 순위를 바꿈 (원어신약성경)엡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흠정역)엡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개역)엡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개역개정)엡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른 성경)엡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

(5)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결정적 이단이다(요일 4:3).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다수필사본계열)에서 번역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오신' 구절을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열(중립사본계열)에서 번역한 성경계열인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성경과 바른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오신'(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구절을 삭제하므로 이단을 생성케 한다.

(원어신약성경)요일 4:3;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것을] 시인 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또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흠정역)요일 4:3;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개역)요일 4: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개역개정)요일 4: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바른 성경)요일 4:3;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6)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않는 자는 결단코 물로 침례 받을 수가 없다(행 8:37).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 가기 위해서는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한다. 요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다수필사본계열)에서 번역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하므로 물 침례를 받음이 기록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열(중립사본계열)에서 번역한 성경계열인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구절을 삭제하였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인데 이 구절이 삭제되면 안 될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 가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하므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원어신약성경)행 8:37; 이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이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흠정역)행 8:37;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개역)행 8:37; 없음 (개역개정)행 8:37; 없음 (바른 성경)행 8:37; 없음

(7) 그리스도께서 主 되심을 중립사본계열에서 번역한 성경계열에서는 삭제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다수필사본계열)에는 그리스도께서 主 되심을 번역하였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열(중립사본계열)에서 번역한 성경계열인 개역성경, 개역개정성경, 바른성경은 이 구절을 삭제하였다. (막 9:24, 10:51, 눅 23:42, 행 9:6, 고후 4:10, 갈 6:17, 딤후 4:1, 계 19:1) (원어신약성경)막 9:24; 또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눈물(들)로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나의 믿음 없음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흠정역)막 9:24;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개역)막 9:24;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개역개정)막 9:24;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바른성경)막 9:24;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으며 말하였다."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8)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원어신약성경)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흠정역)빌4:13;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개역)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개역개정)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른 성경)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수 필사본 계열에서 번역한 성경들은 구원받은 자에게 능력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중립사본 계열에서 번역한 성경들은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다. 철저히 회개치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 마귀가 능력을 준 것을 분별치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인줄 알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

마 7: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들)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7:23절에 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는 내게서 떠나 가라라고 말씀하신다. 불법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바라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일 것이다. 능력주시는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고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이며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어 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인 다수필사본계열 (원어 신약성경과 흠정역)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인 중립사본계열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성경과 바른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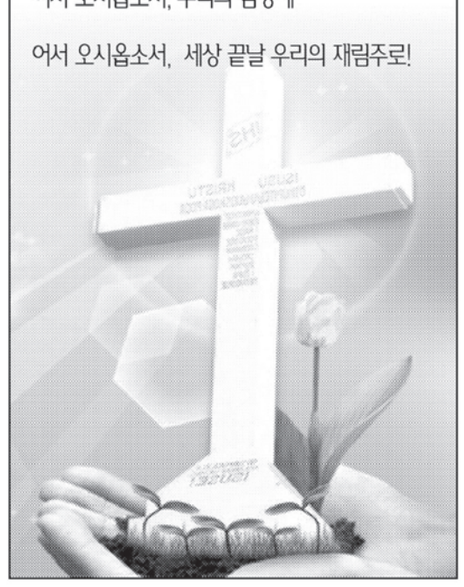
김수정 원장
본지 운영이사
H.P 010-7520-7651

십자가와 부활



하종우 목사

대지의 가장자리가 아직 차가울 때
피던 꽃봉오리 다시 굳게 입 다물고
목련 가지 사이로 달과 별이
엷은 회색미소로 뜨고 질 때
꽃처럼 피어나는 보배로운 피를
어두운 땅에 흘린 당신의 십자가!
세상 권세의 검은 칼바람에 상처 입은
당신의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허물과 죄와 질고로 고통당하는
연약하고 버려진 당신의 길 잃은 양들을 위해
거룩한 훈풍이 대지를 덮을 때
산야가 은혜의 단비로 깨어나면
침묵의 공간, 돌무덤을 뛰어 넘어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소망의 여명을 여는 빛으로 오신 주님,
당신은 부활의 첫 열매, 다시 사신 구세주!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 끝날 우리의 재림주로!



축 부활

2013 행복한 만남이 있는 교회!



담임목사 정기환(D.Ed.,Th.D)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따듯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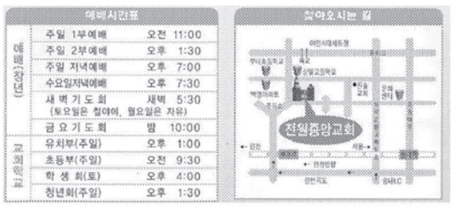
전원중앙교회는
† 여러분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 여러분의 가정과 행복하기를소망하는 교회입니다.
† 행복한 사랑이 피어나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전원중앙교회의 미래 1.성장하는 교회 2. 건강한 교회 3. 아름다운 교회



† 파송선교사 : Johnny, Peligm(필리핀), 정구현(키르키즈스탄),박혜영(일본), 윤장락(호주), 안성희(태국), 방영순(대만), 이원철(캄보디아), C국(Thomas 김)
† 협력선교사 : Nengzakhai(인도 Manipur) 외 12개국 24명 † 강도사 : 최병철 † 전도사 : 이화순, 김상혁, 곽정아, 윤신여
† 장로 : 표사종, 임철수, 김대중, 박준민, † 전도인 : 서승희 † 성가대지휘:손영자집사, 피아노:조은지, 키보드:서승희전도인

▣ 베델성서대학 : 매주 토요일 오후8:30~9:30



가정같은교회 ↔ 교회같은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정기환(D.Ed.,Th.D)
▷SBS방송설교안내: 라디오 5분 메시지, AM837, FM98.1 매주(목) 저녁8:55분
▷cbs 인터넷방송 WWW.CBS.CO.KR 24시간 청취가능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신문방송 이사장(www.jtntv.kr www.cpj.kr)

주 소 : 420-86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79-5(전원마을)
사무실 : 032) 321-9101, 9102, 9109 전화설교 152▷3927
홈페이지 : www.gardenchurch.org
교회동산 : 강원도 양주군 동면 원당리 산43-4번지

부활절 메시지

"사회적 약자의 손 잡아주며 서로 소통하는 메신저 되자"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은 2013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는 메시지에서 "부활절을 맞아 특별히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이제 한국교회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상에서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실직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부활절 메시지 전문〉

2013년 부활절 메시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온 세상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지진과 기근, 기아, 전쟁과 폭력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와 같은 생태학적인 위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인 빈곤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물질만능주의의 어두운 단면이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깊은 그늘을 드리우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되지못하고 도리어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실에 대하여 겸허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상에서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실직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남북이 더는 무력 대결을 끝내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굶주림에 지쳐 있는 북한 동포를 돕는 일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일치와 화해는 모든 사람을 꼭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종교, 정치문제에 있어 우리와 견해를 달리하고 행동하는 사람들까지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섬기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섬기되, 특별히 작은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의 신음과 탄식이 사라지게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온 누리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위근 목사
사단법인 한교연 대표회장

다니엘서 강해 (VI)

종말 대환란이 일어나기 이전인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에게 야합할 배도신앙의 모습을 계시해

(7)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45절)

금, 은, 놋, 철, 철과 흙의 신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나라다. 우상나라는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이요, 유대인에게는 메시야 왕국이다. 거기서는 그리스도가 친히 왕이 되어 통치하니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바벨론 제국도 세워 지지만 멸망당하고, 메데 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세워지지만 멸망당하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세워지지만 신상이 다 멸망당하고 만다.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는 것과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하니 느브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퍽 엎어지고 절을 한다.

잊어버린 꿈을 생생하게 다시 꾸는 것처럼 해주고 해석을 시원하게 해주니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바치도록 했는데 다니엘은 받지 않았다.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경배와 예물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29절 30절에 이 은밀한 이것은 내가 지혜가 있어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알게 하여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것을 나로 말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우리도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다니엘 3장 강해

다니엘서 3장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나오고 다니엘은 안 나온다.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만 나오고 세 친구는 안 나온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근본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다니엘서는 세상 제국의 역사를 말하되 결론은 메시야왕국이다. 메시야가 와서 메시야왕국을 세우고 다윗 왕 때와 같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을 정점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것은 종말에 메시야왕국의 직전에 있을 개국이래로부터 없는 '큰 환란'에 이르기까지 이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 했는데 세상 제국의 역사를 말하되 메시야왕국을 말씀하고 있고, 메시야왕국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으로서야 승리할 수 있느냐? 이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니엘서인데, 1장, 3장, 6장에서 메시야 왕국을 맞이하는 그 신앙을 계시한다.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을 맞이하는 신앙을 계시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1장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먼저 보여 준다. 채식과 물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신앙정절'을 보여주었고,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으로 나온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므로 자기들은 지극히 낮아지는 자가 되니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풀무 불에 던져지면 불살라 죽는 것이다. 이것은 순교신앙에서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세 친구가 순교신앙에 세워졌다는 것을 다니엘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순교신앙에 이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짐을 당하지만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부른다. 이방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한다. 그것은 순교신앙보다 더 높은 신앙차원을 말한다.

세 친구는 바벨론에 와서 순교신앙으로 자란 것이다. 바벨론 나라의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표다. 그러나 다니엘은 히브리 이름이다. 그것은 유대에서 포로로 오기 전부터 순교신앙에 서 있었고, 바벨론 포로로 온 후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했다.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한 것은 세 친구를 순교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일을 했다. 바벨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었다.

이미 순교신앙을 거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바벨론부터 세상 끝날 까지 되어 질 일을 다니엘로 증거케 하신 것이다. 순교신앙을 거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신앙으로 세워서 메시야를 맞이하는 길을 예비한다. 메시야를 맞이하는 복된 신앙이 된다.

여기서 메시야는 초림 하는 예수가 아니라 재림하는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앙을 계시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파노라마다. 12장에 개국이래로 없던 큰 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목적하는 신앙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1) 느브갓네살이 신상을 세움(1절)

느브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60규빗, 너비-6규빗의 우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두었다. 중앙부서, 지방부서 모든 치리 자들을 전부 금 신상의 낙성식에 오게 하여 여섯 악기를 불 때 전부 절하게 했다.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풀무 불에 던져질 것이다. 악기를 불 때 모든 백성, 민족, 언어들은 어느 때라도 그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금 신상에 경배하라고 했다.

이것은 느브갓네살이 자신이 신이다 하여 자신을 신격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바벨론 재국은 한량없이 강성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지상에서 자기를 최고로 여겨 자신이 신의 자리에 선 것이다. 자기를 표현하는 금 신상에 절하는 것은 바벨론 왕에게 절하는 것이고 바벨론 왕에게 절한다는 것은 바벨론 느브갓네살 왕을 신으로 모신다는 뜻이다.

거기에 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왕으로부터 벼슬을 받아 영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경배하지 않는다면 벼슬과 영화를 누리게 해준 왕에게 배은망덕한 죄로 벼슬이 떨려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풀무 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은 누구나 무론하고 경배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무시무시한 일이다.

느브갓네살 왕을 신격화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종말 환란 날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가증하게 행할 것의 예표로 계시한 것이다. 다니엘서의 결론은 개국이래로 없던 큰 환란을 거쳐서 메시야가 오신다는 것이다. 메시야왕국을 세운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70이레가 끝나면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 즉 '메시야왕국이 건립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야가 와서 다윗 때와 같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복을 받고 우리는 강성하리라.' 하는 것이다.

오늘 날 유대인도 이것을 원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메시야왕국이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사실 메시야가 예수님이다. 메시야가 이미 초림하셨다.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몰아 죽여 버리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다. 메시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야는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된다.

따라서 느브갓네살 왕이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의 금 신상 앞에서 6악기 불 때 경배를 강요하는 것은 메시야 오기 직전에 있을 환란 날에 이와 똑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시한 것이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을 경배토록 강요함이요. 그런 자들에게 주는 표가 곧 짐승표 666이다. 본문과 같이 전부 6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종말 대환란이 일어나기 이전인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에게 야합할 배도신앙의 모습을 계시해주고 있다. 즉 666은 출애굽기 14장 7절에 애굽왕 바로의 '특별 병거 육백(600) 승'과 다니엘 3장에 나오는 60규빗의 느브갓네살 신상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오는 6가지 육체의 소욕 즉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숭배를 다 합한 것이다. 특별 병거 600 승은 여러 가지의 영광된 위치나 명예로 유혹하는 것을 말한다. 60규빗의 느부갓네살 신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앙 있고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리 없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은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도 많이 있다. 그 우상을 말하는 것이다. 6가지의 소욕은 영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육체와 결탁된 찌꺼기들이다. 이것들이 모두 배도케 하는 우상의 요소들이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웨신대한노회장
본지 상임이사

노아의子孫 小考 (2)

古朝鮮八禁法 小考 (寒壇古記)

창10:21-25) 노아 → 셈 → 에벨 =〉 ❶ 벨렉 → 아브람 → 중동족속(유대인 아랍인) ❷ 욕단 → 동양족속 → 아세아 동양인). 함 → 흑인 족 → 아프리카(아프리카인), 야벳 → 백인 족 → 유럽, 미국(구라파인).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롬3:29)

※(現 時代엔 混血 族이 急 增加되고 있는 現實)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 하려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벧전 3:18,19) 이를 위하여 죽은 자 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고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함 이니라"(벧전 4:6)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는 것은 現在는 죽은 자들이 지만 福音 宣布 時에는 그들이 살아 있을 때라는 의미로서 인데 천주교가 현재 옥에 있는 영들에게로, 해석을 적용 한 천국과 煉獄說은 성경을 歪曲한 極히 비성경직인 不當한 주장이다.

※또 사실적으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 처형에 앞장을 섰으며, 그 야벳자손 로마인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만한 죄가 없다"고 법정에서 무죄를 선포하고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 집행을 감행한 不當公認 者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천하에 이미 확실히 밝혀진 사실들이다. 분명한 것은 이방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東洋文獻 小考 註:(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公子 : 順天者存 逆天者亡.人命在天: 公子가 제자들에게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멸망 하느니라"고, 하면서 "人命在天 이라!,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느니라!"고, 가르쳤다. 특히 중용, 주역에서는 中庸 : 道之大源 出於天: 中庸의 敎訓: "진리(道)의 대 근원은 하늘에서 나느니라"※(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뜻) 蓋自上古 聖神繼天主極而 道統之傳 有自矣:"자고로 하늘의 뜻인 시작과 끝(A & W)되는 진리(道)가 전통(傳統)계승(繼)됨은 오직(極而)성신(聖神)으로 말미암아 이뤄지는 것이 하나님(天主)의 가장 큰 자의적 주권통치 (有自矣) 이니라."하였고 周易: 元亨利貞 天道之常:"하늘의 天道 원칙을 항상 지켜 따라 살며, 形而上學的이건, 形而下學的이건, 사람이 천도를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하늘의(天上)가르치신 첫째근원(元) 되는 진리(至道)니라"※(天主의 가르치신 것만이 最上眞理란 뜻) ※ 공자는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어느 정도 있었으나 구원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가르치지는 못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방인 사회 先覺者로서 천도(天道)일부를 가르치려한 점은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고로 이방사회 선각자에 대한 역사적 參考價値 (律法과 福音받지 못한 異邦世界時代: 로마서 2:13-16)는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다고 본다.

古朝鮮八禁法 小考 (寒壇古記)

禁法 ①남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②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케 하고 ③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남자는 신분을 낮춰, 그 집 노비가 되게 하고 여자는 계집종이 되게 하고 ④소도(하나님 모시는 각 지역 祭天 壇)를 훼손시키는 자는 즉각 감금하고 ⑤예의를 잃은 자는 군대에 복무케 하고 ⑥근면하게 일하지 않는 자는 부역을 시키고 ⑦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는 태형으로 다스리고 ⑧사기 치는 자는 훈계시켜(徹底 更新시켜)서 방면하라. 하였는데 그중 소도라는 뜻?

※ 소도(祭天壇):이는 天祭라하여 성경구약시대 壇支派(壇君支派)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도로 흠 없는 소를 제물로 드림과 같은 祭祀制度 임, ※ 기원전 1285년壇君天皇이 즉위하여 국호 한국(3한=마한. 번한. 진한)에서 조선 (3조선=마조선. 번조선.진조선)으로 바꾸고 壇君朝鮮의 제22대 壇君색불루天皇이 8개 조항으로 풍속을 바로잡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8조 금법을 만들어 공포했다고(한단고기)에 기록되어 照明하여줌.

※ 本來的 壇(제단 壇)君을 高麗 중 김경명(三國遺事)以後 檀(박달나무檀)君으로 變造하여 佛敎高麗國 社會는 유대자손 壇支派를 쇠멸한 사실들이 역사적(박한규의 신라박씨 연구, 전흥상의 동방의 십자가, 이만열 歷史學敎授 동이문화권)연구로 조명되고 있다. 8금법은 寒壇古記에도 단(壇)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초기 신라시대에 경교라 하였던 고대기독교회가 성경과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온 통사회가 미신우상 불교만행, 타락한 王室貴族亂(朴昔金)성골진골 세력싸움으로 종교문화까지도 우상화로 어지러운 시대로서 신라시대 기독교 경교는 세속문화에 同化되고 말았다는 것도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그 후 고려에 이르러壇(제단)字를(壇支派君)壇君을 의도적으로 檀(박달나무)字로고쳐 檀君 神話로 변조, 유대 壇子孫支派의 자취를 쇠멸은폐하게 이르렀던 것이 역사적 정설로서. 이는 민족역사에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혀두는 바이다.



박한규 목사
본지 상임이사

옥중에서 보내는 서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소식을 붓으로 전하는 지저스타임즈 관계자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본사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날 하나님의 법은 물론 인간사회가 만든 법마저 지키지 못하고 인과응보의 댓가로 현재 이곳 청송 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는 성도입니다.

지천명을 넘어선 나이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직업훈련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 거듭난 인생을 살고자 열심히 기술 습득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의 독자인 저는 매번 기재되는 글을 통해 부족한 신앙의 지식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고 있음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드리는 것은 저의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 진정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 사역 선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목회자분들이 계시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그분들의 선교활동과 갇힌 자들을 위한 복음 전도사역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격려와 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지나온 저의 신앙은 머뭇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런 머뭇거림 속에 2년 전 이곳에서 교정선교하시는 채기화 목사님과 유윤주(교정선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매월 두 번씩 서울에서 이곳 청송까지 그것도 1박 2일로 연이틀 두 곳의 교도소 수형자들 예배인도와 자매결연 상담 또한 성가대 찬양지도 등 갇힌 자들의 갈급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물질적인 후원과 영적인 만나(말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채기화 목사님은 28여 년 동안 교전선교 사역을 해 오신 분으로 큰 수술로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몸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에 저는 늘 부끄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유윤주 목사님은 저희 같이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어머니 마음으로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어 보듬어 주시고 곡조있는 기도 찬양으로 삭막하게 닫혀 있는 형제들의 마음을 열어 주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었음을 시인합니다. 그 외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동역자분들 저희들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의 소견은 귀사(貴社)의 기독교 소식란에 이런 선교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이분들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거듭남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몰론 수많은 곳의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정말 채기화 목사님과 유윤주 목사님은 하나님께 상급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저의 뜻을 참고 고려하시어 부디 좋은 소식되었으면 마음으로 부족한글 올립니다. 앞으로 지저스타임즈의 무궁한 발전과 유익한 글로 독자들에게 은혜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강하십시오 살롬..

청송 직훈에서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원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그 이름을 위하여

말씀 : 사도행전 5장 40-42절 찬송 : 91

지금 사도들의 상황은 핍박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가운데 있습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가정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등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

말씀 : 사도행전 6장 1-4절 찬송 : 408장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부흥 후에 소외된 자와 낙오된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것입니다. 결국 원망하는 세력이 형성되어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원망은 잘못된 것을 바꾸는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속에서 어떠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길 때 그 문제를 개선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

말씀 : 사도행전 6장 5-7절 찬송 : 365장

부흥의 초석은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이 일어나는 개인이나 단체의 부흥은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부흥은 제자의 수적인 증거를 가져옵니다. '예루살레메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7절). 교회 부흥에 있어서 필연적인 요소는 구원받는 이의 수적인 증가입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이 교회에 유익이 되며 부흥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

말씀 : 사도행전 6장 8-15절 찬송 : 292장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아름다운 삶은 악한 위선자들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사람을 매수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씨

말씀 : 사도행전 6장 1-6절 찬송 : 267장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제를 '약속의 씨'로 삼았습니다. 그 씨는 이스라엘 후손 전체를 가리킴과 동시에 오실 메시아 곧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씨는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어 괴롭힘을 받을 것입니다.(6절) 그 후에 하나님이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이 땅에서의 형편과 대우가 아닙니다. 약속이 씨라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버림받은 자가 구원자가 됨

말씀 : 사도행전 6장 7-13절 찬송 : 301장

스데반은 요셉의 삶을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결국 치리자로 세우셨습니다.(10절) 그리고 팔렸던 요셉은 형들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시기로 인해 팔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에서 부활시키셔서 온 세상의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상처를 사명으로 바꿈

말씀 : 사도행전 6장 14-16절 찬송 : 294장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친히 세워주십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합니까? 그들을 미움이나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외면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속량하는 자

말씀 : 사도행전 7장 17-29절 찬송 : 286장

스데반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언합니다. 모세는 동족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당한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했던 모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로부터 거절당한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증인으로

말씀 : 사도행전 7장 26-36절 찬송 : 488장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거절당한다 해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은 모세를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백성에게 저주를 받아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량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를 증인으로

말씀 : 사도행전 7장 37-41절 찬송 : 204장

스데반이 말하는 모세는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입니다.(38절)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 전해 주던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39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을 향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앞지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상을 만들어 숭배함

말씀 : 사도행전 7장 42-45절 찬송 : 446장

하나님은 우상숭배 하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형상을 섬기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땅끝까지 전단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외치라

말씀 : 사도행전 7장 46-56절 찬송 : 430장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55-56절을 주목하십시오. '보고 말하되 보라' 스데반은 자신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 바라보십시오.

●내 영혼을 보고 기도하라

말씀 : 사도행전 7장 57-59절 찬송 : 91장

스데반은 돌에 맞아 고통스러울 때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고통 중에서도 자신 영혼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고통중에 있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증오하고 저주하느라 자신의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합니다. 스데반은 대적자들을 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고통당할 때 내가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낸 영혼을 맡기십시오.

●세상의 죄를 보고 중보하라

말씀 : 사도행전 7장 60절 찬송 : 306장

스데반의 설교에 무리들은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로 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가해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구원받은 사람, 성령과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로 죄가 만연해지는 세상을 위해 중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칼럼

어느 노숙인의 눈물

우리민족성은 다정다감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면 찾아가 위로하고 아픔을 같이 하였으며, 고래로부터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민족으로 살아왔다. 그 동안 수 많은 전쟁과 혼란의 격변기를 견디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는 세계 G20 경제국에 돌입했으며, 앞으로 G3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발전이라는 빛 아래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이다. 공직에서 퇴직한 후 생각지도 않은 사업실패와 가정파탄으로 흩어진 사람들, 직장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등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갈곳이 없어 노숙인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노숙인은 정확히는 파악 할 수 없으나 대략 칠천 명에서 일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들은 기차역 주변, 버스 주차장 부근 놀이터 부근에 은거하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하고 있다. 봉사단체, 교회 등에서 한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노숙인들 중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정책적으로 이들에 대한 안정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영·육아 보육비 지급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의 어려움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추위 속에 잠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빈손의 노숙인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봉사단체에서 한 끼의 식사 제공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기차역 주변에서 세멘트 바닥에 신문지 한 장을 깔고 추위에 떨며 잠을 청하는 노숙인들의 고통을 가슴 아파 해야 할 일이다.

처음 노숙자로 나갈 때 그들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런 세월을 지나다보면 자신을 잊어버리고, 걸인이 되어 깡통에 동전을 구걸하는 것이다. 정부는 노숙인 대책을 세워 그들의 삶을 다시 소생시켜 주어야한다. 그들은 걸인습관으로 일하기를 원치 않지만, 기본적 생활 대안으로 가내공업 공장등을 지역별로 만들어 강제 수용하듯 하여, 가르치고 월급을 주어 새로운 삶을 되찾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어느 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서성이는 노숙인을 보았다. 그의 모습에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아픔의 표정을 보았다. 곧바로 집을 가출한 사람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눈물로 얼룩진 모습으로 흰 와이셔츠에 더러워진 옷을 입었으나, 그의 행동모습을 보면서 공직 퇴직자로 생각되었다. 그들이 향방없이 집을 나올 때의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누가 알겠는가!

새로 출범한 정부의 복지 정책은 노숙인의 직업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노숙인들의 과거 전문직을 찾아 일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걸인으로 오래 살게 되면 심리적으로 제한된 조직생활을 싫어 하지만, 강권으로 가내 공장등지에서 일하도록 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삼각형 사회가 아닌 사각형 사회인 것이다. 국민모두가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면서 평등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한때는 공직자로서 교계지도자로서 또는 각종 사업가로서 살아온 노숙인들을 사회가 외면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삶을 영위해 나갈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적극 지원 유도해야할 것이다.

노숙인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다면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별로 노숙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정책을 맡아 일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원들이 허름한 차림으로 걸어서 기차역 주변 버스 주차장 주변을 배회해보면 그들 삶의 정황을 알 것이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눈물을 금치 못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가 출범되었다.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유심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아무도 돌보지도 생각지도 않는 노숙인 대책을 복지 차원에서 최우선순위로 정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어느 정부도 돌아보지 않은 어두운 삶의 정황을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주도록 하자.

사회적으로 노숙인들이 늘어만 간다면 경제국으로서의 손상이 될 뿐이다. 아픔이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해 시급한 정책적 배려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노숙인의 눈물을 보면서 아픈 마음을 진정해 본다.



서영웅 목사
퓨리탄 장로교회
본방송 상임이사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국제 자연치유 선교 학술회

1. 일시 : 2013년 4월 22일 〈월요일〉 오전10시30분 -오후 3시
2. 장소 : 하나님이 디자인 하신 교회 주소 :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390번지 / 김창룡 목사 시무
   문의 : 031-354-7591,031-354-7891, 011-204-6795, 011-287-0691, 010-7172-0675, 016-348-6374
3. 제목 : 리딩 바디 전도법 공개 세미나
   강사 : 차상기 박사 〈임상병리사/한의사〉
4. 목적 : 전도를 위한 자연치유 전문 사역자 양성
   특징 : 1) 전도가 쉽게 이루어진다
   2) 쉽게 마음문을 열수 있다
   3) 쉽게 접근 할수 있다
   4) 대화가 쉽게 이루어 진다
   5) 쉽게 교회로 인도 할수 있다
   6) 공감대를 쉽게 이룰수 있다.
   7) 전문치유 사역자가 되어 전도를 쉽게 할수 있다.
   8)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 참가비 1만원 ● 중식 제공 ● 준비관계로 하루 전 예약바람 ● 리딩바디 전도법 수료증 ● 참가자에게는 특별 건강태스트를 해드립니다 ● 당일 오전 9시 50분-10시 10분까지 병점 전철역 2번출구에서 봉고 대기 함 ● 4월 29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자연치유 사역 전문교육이 실시 됩니다 ● 1년 2학기 코스 국제 자연치유 선교 학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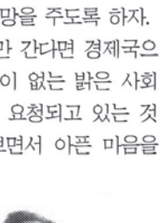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사도영성 신학원 개원

이 시대의 사명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사도영성 신학원은 수시로 접수 중...

⊙ 학장 : 홍요한 박사
⊙ 교무과장 : 양미상 목사, 사무과장 : 정운선 목사
⊙ 선교회장 : 선년규 장로
⊙ 선교회 총무 : 김동현 간사 : 인현숙


학장 홍요한 박사

1. 학교비젼 / 교과목 소개
2. 교수소개
   학장 : 홍요한 목사 (안양신학대학원 / 미국에쉴랜대학원 목회학 박사 / 호주시드니 알파크로시스대학, 미국 University of Puritan 한국학장)
   ■ 교 수
   지왕철 목사 (미국피시레이유니버시티 목회학 박사/한기보협 상임고문)
   김창룡 목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 미국CLARMONT대학원목회학 박사)
   이효은 목사 (한양대학 / 총신대학원 석사. 박사)
   박경혜 교수 (안양대학원/미국하와이 인터네셔날대학원 기독교상담학박사)
   허 식 목사 (안양신학대학원 석사 / 한국경목총회 장)
   이갑표 목사 (한영신학대학원 / 대신대학원 석사)
   임요한 목사 (안양신학대학원/전리수호구국기도회 대표 / 예수재단 대표)
   임혜숙 목사 (한국농화교역자총회 증경총회장)
   박용숙 목사 (연세대학원 석사 / ezob.org 이잠원장 / 주성농아교회담임)
   양미상 목사 (고려대학원 / 본 교 교무과장)
   정기남 목사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대표이사)

사도들의 영성 특징
1. 사도들은 미래를 산 사람들이다. 2. 사도들은 마귀와 세상을 이긴사람들이다. 3. 사도들은 실천하는 지성인이다.
4. 사도들은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다. 5.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사도영성신학원을 개원하면서 평신도나 신학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첫 사랑을 살려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데 있다.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5-3외 1필지 에스티엑스 더불유-타워 제11층 1108호
• Email: church-7@hanmail.net • 학장 : 010) 7585-1955 02)2625-0982



중흥교회



담임 엄신형 목사
(직전총회장)

주일예배안내
오전 7시 1부, 11시 2부, 오후 2시, 5시

134-884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전화 : 02)476-713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예배안내
주일오전 : 오전 11:00 수 요 일 : 오후 7:30
주일오후 : 오후 2:00 새벽기도 :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2013년 표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헌, 조길수,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 사 : 전순자, 김정예,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1058번지
구로 우성 A상가 202호
☎02)869-0166 Fax:02)869-0167
이사장 : 011) 287-0317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우슬초 목사

예배안내
주일 오전11시 오후 3시 오후 8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새벽 5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A) 319동 1803호 http://ezob.org
☎ 02)414-1191 H.P 011)775-5154 010-4611-3221

사랑의교회



담임 홍항표 목사
(한경총 총무)

예배안내
주일오전 11시, 주일오후 1시30분
수,금요 저녁 예배 오후 8시

152-861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 02)2625-0982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장승현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H.P 011)9027-9712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담임 허 식 목사
(한경총 총회장)

예배안내
오전 11시 1부, 오후 2시 2부

426-18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서울방주농아교회



담임 임해숙 목사
청각장애인지방연합 대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16 2층
문의:010)4611-3221

쉴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안식 목사

예배안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토요일 제외)
이린이부예배	주일 오전 9:30
중 . 고등부	주일 오전 9:30
대학 . 청년부	(토) 저녁 7:00
심야 기도회	(금) 저녁 9:00
프리셉트 성경공부	(화) 오전 9:00
	(화) 오후 7:00

(360-170)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담임 정연수 목사

www.myhyosung.net

정규예배			
주일 전통예배(1부)	오전 9시 (레인보우 아트홀)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새동홀)
주일 현대예배(2부)	오전 11시(레인보우 비전홀)	어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00(교육관)
주일 청년예배	오후 2시(레인보우 아트홀)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00(레인보우 아트홀)
주일 오후예배	오후 3시(레인보우 비전홀)		
기도회 및 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레인보우 아트홀)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9:00(레인보우 아트홀)
수요기도회1부	매주 수요일 오전 10:30(레인보우 아트홀)	세계위경탈주간	주일 오전 9:30(예배실)
수요기도회2부	매주 수요일 오후 7:30(레인보우 아트홀)	경로교실	매주 목요일 오전 11:00(레인보우 아트홀)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 032)552-5200 Fax. 552-5204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리교회



담임 오상렬 목사
(본지상임이사)

표어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5-1
전화 : 041-564-7004, 041-551-3553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 · 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군사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2013년도 목표
"온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 선교사 : 김경자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촛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YANGGIROUN CHURCH



표어 이 전의 더 큰 영광을 보리라(학2:7)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섬기는 분들
전임전도사 : 이귀선(샤론)
전도사 : 헵시바
선교사 : 전승주, 손호자(태국치앙마이)
장로 : 최문호 , 유봉철
안수집사 : 손경현, 배하성, 정대봉
성가대장 : 정대봉
성가지휘 : 이용경
피아노 : 배민지
신디 : 김인영
드럼 : 유혜란 김효정

예배시간 안내
주일전도사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09:30
2부 찬양예배 오후 1:30
청년1,2팀예배 오전 09:30
사랑 애찬 교제의시간
주일학교예배 오전 09:30
수요기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목
영락원예배 오전 9:00
1일철사 예배 오전 05:00
목요치유예배 오후 7:30
1기 제자교육 월화금요반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 향기로운빌딩 9층
☎ 032)814-7720, 팩스 032)714-3131, 010)4274-3330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담임 모상련 목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 일	예 배	시 간	장 소
주 일	낮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저녁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금요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청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산강홀
주 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무안노홀
주 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층 새희망
		2회 오전 11시 30분	
주 일	유초등부	1회 오전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층 아동부터
		3회 오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중등부	오전 9시	3층 영산강홀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경건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무안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표어 대한민국 13만 경찰과 60만 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며
전국 경목위원들의 사역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빌며
한국경목총회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축 부활

한국경목총회 2013 부활절

총회장



허 식 목사
(과천영락교회)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 증경총회장



엄신형 목사(중흥교회) — 직전총회장



지왕철 목사 — 고문



권다윗 목사 — 고문



박한규 목사 — 고문



황원찬 목사(대신대학원 총장) — 고문



이정춘 목사(청대교회) — 부회장



김창룡 목사(하나님이다지안하신교회) — 부회장



김종순 목사 — 부회장



이창식 목사(예광교회) — 부회장



유철규 목사(신평중앙교회) — 부회장



김길수 목사(주사랑교회) — 부회장



강년섭 목사(백운교회) — 부회장



조규성 목사(일리교회) — 부회장



남규열 목사(동인당건재한약방) — 부회장



홍항표 목사(사랑의교회) — 총무



조연기 목사(주향교회) — 부총무



우슬초 목사(주성청각장애인교회) — 협동총무



임해숙 목사(청각장애인대표) — 협동총무



양미상 목사 — 서기



박양우 목사(한사랑교회) — 부서기



오성규 목사(새생명교회) — 회의록서기



김옥환 목사(새중앙교회) — 회의록부서기



정운선 목사(한마음교회) — 회계



주광삼 목사(하성교회) — 부회계



이효은목사 (지저스타임즈 언론부총사협의회 총재) — 감사



이상재 목사(함께하는교회) — 감사



정기남 목사(한경총 언론대표) 지저스타임즈(신문) JTNTV 한터넷방송 — 언론사 대표



임기석 목사(배방교회) — 이사



박용준 원장 (광명누가내과병원 및 글리벌케어 대표) — 이사



옥윤진 목사(왕성성결교회) — 이사

사무국 : 서울시 구로구 개봉 3동 370-40
경찰 선교에 관심이 있는 경로위원을 초대합니다.(이사.중앙위원)

110-74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한국경목총회 전화 02)583-1955 팩스 02)868-0652

문의 : 사무총장 홍항표 목사 010-7585-1955
홈페이지 사이버 경찰청 주요사이트 : 한국경목총회 www.gapck.or.kr

■ 부활절 메시지 ■

부활 신앙으로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하라



오정호 목사
미래목회포럼 대표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겨울의 긴 장막을 떨쳐 버리고 봄기운이 감도는 때에 허락하신 올해 부활절의 은총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의 목격자와 증인된 사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공허한 입술만의 고백을 뛰어 넘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물 되어 주님의 제단에 올려져 부활의 증인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해봅니다. 삶으로 묻어 나오는 그리스도의 제자 됨의 인격과 사역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빛과 소금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가 세상에 추파를 던져 환심을 사려는 연약한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에 목말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일무이한 해답과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휴전선 너머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지구촌 각 처에 흩어져 사는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동포들에게도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후 2013년 부활절에
미래목회포럼 대표

웨신총회 실행위원 자문 연석회의 열어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총회장 이재갑 목사)에는 최근 제97-2차 임원, 실행위원 및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제2회 목회자 재교육 및 강도사 연수교육을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령진리교회(담임 방윤희 목사)에서 총회 실행위원 및 자문위원 연석회의는 먼저 장한국 목사(대한노회장)의 기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총회장 이재갑 목사는 행2:36-38절을 주제로 사순절기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내가 죽였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실행위원 및 자문위원 연석회의가 약 2시간에 거쳐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총회장 이재갑 목사는 총회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해 섬겨온 방윤희 목사를 높이 치하하고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다루어진 보고와 안건에서는 강도사 고시 결과에 대해 고시부장 장창윤 목사의 보고와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들의 소속노회의 선택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하되, 그 외 자세한 것은 수도노회(노회장 김춘택 목사)가 주관한다.

또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의 출신, 웨신 동문들을 다시 규합하자는데 뜻을 정하고 동문의 날 행사를 갖게 되었다는 취지와 설명에 웨신총회가 앞장서서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어서 총회인준신학 청원의 건이 다루어지고, 교단통합관련 진행상황 보고와 2013년 신학교 주일 실시에 대해 설명한 후 제2회 총회 목회자 세미나 및 재교육(강도사 연수교육)시행에 대해 총회 교육부와 신학위원에 위임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웨신총회는 연석회의에서 총회주일과 신학교주일에 비협조한 교회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3월 말까지 수납해 줄 것을 통고한다. 이날 총회 실행위원 및 자문위원 연석회의는 총회회의실을 벗어나 성령진리교회 방윤희 목사(중앙노회 부노회장)의 초청으로 교회본당에서 이루어져 융숭한 대접으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마쳤다.

기하성, 조용기 목사 통합총회장 공식 추대

'교단통합 및 성령운동 60주년 행사를 위한 준비기도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여의도총회)과 서대문총회(총회장 박성배 목사)가 25일 오후 3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교단통합 및 성령운동 60주년 행사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함께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는 여의도총회와 서대문총회 양 교단 총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단 통합을 위해 기도하고, 60주년 총회를 기념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양측은 교단 통합과 중재를 위해 교단 총재인 조용기 원로목사를 통합총회장으로 공식 추대했다. 수 년간 양 교단이 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수차례 무산됨에 따라, 통합총회장에 추대된 조용기 총재가 양 교단 통합에 전면으로 나서게 됐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설교를 통해 "짧은 시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우리 교단이 통합의 한걸음을 내딛음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성령의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확고한 뜻을 품고 하나님에 맡기자"고 강조했다. 또 "통합을 위해 교단이 노력한 끝에 이 자리에 온 만큼 이것이 무로 돌아가면 안될 것"이라며 "교단 선배로서 교단이 하나되는 기쁨을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싶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하나되기 위해 힘써서 교단이 하나로 묶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설교가 끝난 후, 양 교단에서 참석한 총대원들은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와 교단 통합을 위해, 조용기 통합총회장과 총회원들을 위해 합심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를 마친 양측 교단은 오는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교단 6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연합해 드릴 예정이다.

이날 교단 통합을 위한 기도회를 열기 앞서 같은 날 오후에는 여의도총회와 서대문총회가 각각 임시총회를 열고, 통합총회장 추대를 위한 헌법 수정안 보고를 통과시켰다. 헌법 수정은 통합총회장 추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 교단의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것이다.

오후 1시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61차 제2회 임시총회를 연 여의도총회는 헌법 수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수정헌법 제120조는 '교단 통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62차 회기 말까지) 통합 총회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구체적인 사항으로 △직무 : 각 교단 통합추진위원회 모임의 의장이 된다, 교단 60주년 각종 연합행사의 대표가 된다 △예산 : 필요한 예산은 각 교단에서 공동분담 한다 △ 직원 : 업무를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고 정했다.

아울러 제121조에는 헌법의 효력을 201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을 덧붙였다.

이후 곧바로 2시에 바울성전에서 열린 서대문총회 임시총회에서도 통합총회장 추대를 위한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서대문총회 헌법 수정안은 '여의도 총회와 통합할 시 반드시 교단 헌법에 준하여 양 교단과 합의하여 임시 총회장을 둘 수 있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출 방법은 양 교단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추대하는 후보를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한다'고 정하고 있다.

천안함폭침 '국제테러국' 재지정하라

종북세력 국제테러집단 김정은 감싸기 이적반역 중단해야

천안함폭침 3년이다. 2010년 3월 26일 저녁 9시 22분 백령도 NLL인근 해상에서 초계중이던 천안함이 북괴잠수정이 발사한 어뢰가 가스터빈실 밑에서 폭발, 버블젯현상으로 선체가 두 동강이 나면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만 구조되는 수중도발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현장수색 및 구조 활동에 투입된 해군 UDU소속 한주호 준위가 사망하고 폭파 잔유물을 건지던 민간 쌍끌이 어선이 침몰, 승무원 9명이 희생됨으로서 56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

이에 대하여 5개국 기술진으로 구성 된 국제합동조사단에서 2개월여, 정밀조사 끝에 2010년 5월 20일 합동조사결과 북괴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공격으로 인한 폭침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과 극좌세력들은 정체불명의 음모론으로 여론을 분열시켰다.

정작 사건의 주범인 북괴테러집단은 남한 내 종북세력의 김정은 감싸기 행태를 즐기다가 국제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사건 발생 7개월 뒤인 2010년 11월 2일에서야 재야 종북세력들의 황당한 주장을 짜깁기하여 합동조사단이 밝힌 조사내용을 반박하는 공개장을 발표하였다.

북괴테러집단이 대규모 테러에 대하여 시인도 부인도 않고 침묵하던 NCND 관행을 깨고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국제테러국가로 또다시 낙인찍힐 위기감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자백'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한편, 국내 야당과 종북반역투항세력은 권위 있는 다국적 기술진의 객관적조사결과에 의해서 북괴테러집단 소행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북괴 김정은의 소행임을 애써 부인하고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종북반역세력이 북괴보다 더 다급하게 날뛰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상전(上典)인 북괴가 2008년 10월 12일 테러지원국명단해제 이전으로 돌아가 ▲국제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적성국교역금지 리스트 적용 ▲국제금융거래금지 ▲해외자산 동결 ▲교류 및 지원금지 등 최악의 사태를 막아내라는 지령에 따른 몸부림이다.

국내 종북반역세력의 이런 행태는 "혁명투쟁에 이로운 것만 진실로 받아들이는 공산당식사실주의"탓도 있지만, 그 보다는 이성적 판단이나 감성적 공감대와 상관없이, 종북에게는 신적 존재 이상인 '위수김동' 일족에 대한 "절대충성, 무조건복종"의무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수령(首領)의 무오류성(無謬謬性)에 대한 반복학습과 세뇌로 인한 정신병리적 효과에 기인하는 것이다.

천안함폭침 3주기 아침, 정부당국에게 "북괴 시인사과 재발방지 약속"관철이 대북정책의 기본전제임을 재확인해야 함은 물론,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 도발의 빌미가 된 2007년 10.4 남북회담 당시 노무현이 김정일 앞에서 했다는 NLL을 포기 발언록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야당과 종북반역세력에게도 최소한의 이성과 분별력을 회복하여 북괴 도발과 테러실상을 재인식, 적(敵)에게 도발 구실을 제공하고 테러욕구를 부추기는 이적반역(利敵反逆) 행각을 멈추지 않는다면, 종북반역은 스스로 입지를 상실하고 자멸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성령의 불길로 세계와 민족을 변하시키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서교회

KYOUNG SEO PRESBYTERIAN CHURCH SINCE 1982

지나온 30년 그리고 또 다른 한 걸음

2013 축복의 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행복한 우리



당회장 홍재철 목사



홍성익 담임목사

- 시무장로
  배인관 장로, 고 현 장로, 엄선복 장로, 김남국 장로, 박정옥 장로, 조재현 장로, 권기원 장로, 신동률 장로, 한남규 장로, 기노하 장로, 안연각 장로, 진명선 장로, 손창호 장로, 정 인 장로, 박재경 장로, 류재화 장로, 강남주 장로, 김봉석 장로, 김도현 장로, 한재광 장로, 이수봉 장로
- 명예장로
  김중순 장로, 이인천 장로

- 할렐루아 성가대
  음악국장 : 박정옥 장로 반주자 : 김성은 오르간 : 성희로
  성가대장 : 박정옥 장로 총 무 : 김철호 경조부장 : 김남덕
  상임지휘자 : 한미경 권사 부총무 : 김준기, 신봉진
  악보장 : 류재성, 강병선, 백종부
  파트장 : s : 송희숙 A : 송영순 T : 김한수 B : 조봉제

● 예배시간 안내

부 서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주일오전 7시	솔로몬성전(B1층)
	2부	주일오전 9시	예루살렘성전 (3층)
	3부	주일오전 11시30분	
	4부	주일오후 3시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 7시		솔로몬성전(B1층)
금요 철야	금요일 저녁 8시30분		예루살렘대성전(3층)
새벽 기도	매일 새벽 5시		솔로몬성전(B1층)
경서 기도학교	영아부	주일오전 9시	벧엘의집(4층)
	유치부		가브리엘(B1층)
	유년부		사랑의집(B1층)
	초등부		소망의집(B1층)
	소년부		믿음의집(B1층)
청소년부	제1청소년부	주일오전 9시	솔로몬성전(B1층)
	제2청소년부		비전 아카데미(2층)
주일 찬양예배	청년국	주일오전 11시30분	솔로몬성전
		주일오후1시30분(찬양예배)	



● (421-80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1번지
● 전화 : 032) 684-8241-5 Fax : 032) 684-8240 ● http://www.kyoungseo.org

대한예수교장로회 화정충현교회

화정교회는 말씀이 좋고, 행복한 교회로 가정을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당회장 이효은 목사
(지저스타임즈부흥사협의회 총재)

시무장로 : 신오식, 정종국, 김홍령

2013표어

"사랑으로, 기쁨으로, 열정으로 섬기며 전도하여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늘 노래하는 자는 무병장수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는 영적으로 무병장수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시편9:11)

"나도 잘되고 자손도 잘되자"
1.예배의 삶의 초점 맞추고 전도하라.
2.온전한 십일조와 감사로 물들라.
3.부모공경으로 효를 다하여라.
4.봉사, 섬김으로 복을 쌓아가라.

찾아오시는 길

〈도시형버스〉
1 중산 ↔ 화정 85-1 고양동 ↔ 송정전철역
850 고양동 ↔ 행신역
706 교하 ↔ 서울역 7728 대화동 ↔ 신촌

〈좌석버스〉
85 고양동 ↔ 김포공항 800 내유동 ↔ 신촌
9701 가좌동 ↔ 명동 9713 본일산 ↔ 서울역

〈직행좌석〉
82 내유동 ↔ 영등포 1900 본일산 ↔ 서울역

〈시외버스〉 3700 의정부 ↔ 인천

〈마을버스〉 6, 6-1, 6-4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출구 (도보 8분거리)

예배시간

주일오전예배 : 오전11시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30분
금요기도회 : 밤 9시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주일~금요일)
유-초등부 : 오전 9시
중-고등부 : 오전 9시
청년부 : 오후 3시30분



지저즈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제1대 총재 이효은 목사 취임



● 주소 : 412-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38번길 27(화정동) ● 교회(031) 966-0015 (FAX겸용) 자택 (031) 965-7682

201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주여! 하나님의 은사가 이 민족위에 다시 불 일듯 일어나게 하소서! (딤후 1:6)

설교자



조용기 목사
(한기총 명예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대회장



홍재철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준비위원장



이영훈 목사
(기하성여의도순복음 총회장)

사랑하는 1,200만 성도 여러분, 2013년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 부활절 새벽 이른 아침에 우리 모두 일어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합시다. /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그 분을 높여 드립시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짓과 쾌락을 좇아가는 악한 시대이며, 어느 것이 진리인지 모른 채 선이 고통받고 악이 개가를 부르는 때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나를 따르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선택의 기로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며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1,200만 성도 여러분, 10만 교역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3월 31일 오전 7시 여의도순복음교회**로 모입시다.
그리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찢기고 상한 한국교회, 도전과 고난의 역사 앞에 성장의 한계에 있는 한국교회가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불 일듯 일어나
10만 교회 2천만 성도의 새로운 원년의 시대를 열어 하나 되는 한국교회 영적대각성 운동을 일으킵시다.

일 시 2013년 3월 31일 주일 아침 7시
장 소 여의도순복음교회 본당
주 최 CCK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 관 2013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200만 성도들의 사랑의 후원을 요청합니다.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8-008941 / 예금주 :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13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명예대회장
조용기 목사(기하성여의도), 방지일 목사(예장통합), 이성택 목사(예장합동), 이만신 목사(기 성), 김장환 목사(기 침), 김선도 목사(기 감), 곽선희 목사(예장통합), 림인식 목사(예장통합), 석원태 목사(예장고려), 지 덕 목사(기 침), 오관석 목사(기 침), 길자연 목사(예장합동), 박종순 목사(예장통합), 이용규 목사(기 성), 엄신형 목사(개혁총연), 이광선 목사(예장통합), 조경대 목사(예장개혁), 백기환 목사(예장중앙)

대 회 장 홍재철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준비위원장 이영훈 목사(기하성여의도순복음 총회장)

공동대회장
강기원 목사(예 장), 강희윤 목사(예장호헌A), 김삼환 목사(예장통합), 김성광 목사(하나님의성회), 김용도 목사(기 침), 김원남 목사(예장선교), 김인식 목사(개혁정통), 박성배 목사(기하성), 박정원 목사(고 신), 박중선 목사(합동진리), 박창환 목사(예장고려), 박호자 장로(기하성여의도), 엄정묵 목사(개혁총연), 윤종관 목사(예 성), 윤항기 목사(개혁예음), 이강평 목사(그교회협), 이병순 목사(합동선목), 이상범 목사(예장합보), 이승렬 목사(예장개혁총회), 이용운 목사(합동개혁총회), 이용호 목사(예장고신), 이준원 목사(합동총신측), 장성호 목사(국제합동), 장완준 목사(예장호헌), 정인도 목사(기 침), 정준모 목사(예장합동), 정진성 목사(정통보수), 조갑문 목사(합동중앙), 조용목 목사(하나님의성회), 진택중 목사(예장보수), 최원석 목사(개혁총연), 하태초 장로(평 협), 황덕광 목사(합동보수맹원) (가나다순)

상임준비부위원장
강영선 목사(기하성여의도), 고충진 목사(기하성여의도), 고흥식 목사(기 침), 김두성 목사(예 성), 김탁기 목사(그교회협), 박현모 목사(기 성), 손선영 감독(예 감), 안명환 목사(예장합동), 엄현섭 목사(루터회), 이영식 감독(나사렛), 이태근 목사(기하성여의도), 정학채 목사(예장개혁) (가나다순)

준비부위원장
강신홍 목사(합동보수), 고창곤 목사(예장대신), 김길수 목사(예장성장), 김대형 목사(보수합동), 김상영 목사(합동복음), 김성구 목사(개혁합동), 김송수 목사(예장개혁), 김영배 목사(합동보수C), 김의웅 목사(합동동행), 김인찬 목사(하나님의성회), 김종환 목사(합동총신측), 김중곤 목사(합동총신), 김홍기 목사(피어선필동), 나세웅 목사(예 성), 류성춘 목사(합동연합), 박남교 목사(합동복구), 박동섭 목사(고려개혁), 박상하 목사(합동개혁B), 박의순 목사(예장총회측), 박철수 목사(개혁진리), 백충남 목사(보수합동), 서옥임 목사(합동중앙), 설동찬 목사(예장근본), 송 택 목사(예장성향), 안영권 목사(복음교회), 오연석 목사(개혁국제), 원종문 목사(피어선오류동), 유안근 목사(예장개혁총회, 유택열 목사(합동보수맹원), 이건호 목사(예장중앙), 이남균 목사(예장성장), 이복례 감독(기감연합), 이영식 목사(합동한신), 이재갑 목사(예장웨신), 이재웅 목사(개혁진리), 이정금 목사(기하성순복음), 이종복 목사(브니엘), 정은주 목사(예장개혁), 정태현 목사(합동동신), 조광작 목사(북한어린이), 조일래 목사(기 성), 조창희 목사(예장예장), 최병준 목사(합동동신), 최순복 목사(피어선오류동), 최영학 목사(기감연합), 최영홍 목사(합동총회), 최재희 목사(합동개신), 최제봉 목사(그교역협), 한영동 목사(총회합동개혁), 홍계환 목사(합동장신), 홍상제 목사(개혁합동) (가나다순)

총 무 최명우 목사(한기총 총무) **서 기** 님태섭 목사(한기총 서기) **진 행** 황규철 목사(예장합동) **부총무** 윤덕남 목사(기 침), 도용호 목사(예장호헌)
회 계 라도재 장로(예장합동) **부회계** 고진업 장로(예장개혁) **감 사** 고상권 장로(기하성여의도), 고성삼 장로(기 성)

협동총무
강구원 목사(예장고려), 강세창 목사(합동동신), 강원식 목사(합동보수), 강정식 목사(합동중앙), 강현길 목사(루터회), 고명훈 목사(피어선오류동), 구자우 목사(고 신), 권오삼 목사(예장보수), 김기곤 목사(예장개혁), 김기철 목사(개혁예음), 김동락 목사(예장성합), 김만태 목사(합동동행), 김명식 목사(순복음), 김병근 목사(합동총신측), 김요한 목사(국제합동), 김창수 목사(보수합동), 김홍성 목사(하나님의성회, 맹균학 목사(합동한신), 박형철 목사(합동보수A), 서승원 목사(합동보수C), 서정웅 목사(브니엘), 손귀영 목사(합동총회), 손 덕 목사(예장예장), 손원영 목사(개혁진리), 송태섭 목사(고려개혁), 신언창 목사(예장웨신), 안병태 목사(총회합동개혁), 어승우 목사(기감연합), 엄만동 목사(그교회협), 우순태 목사(기 성), 유바울 목사(예 장), 윤용섭 목사(정통보수), 윤현주 목사(예장성장), 이계용 목사(예장성장), 이동광 목사(브니엘), 이명숙 목사(예장선교), 이병일 목사(예장중앙), 이삼용 목사(기하성), 이승진 목사(합동중앙), 이영욱 목사(합동보수맹원), 이재형 목사(개혁국제), 이종복 목사(합동연합), 이중식 목사(합동개혁B), 이지영 목사(예장합보), 이탁규 목사(합동개혁총회, 이화평 목사(합동국제), 장덕성 목사(피어선명택), 장일청 목사(합동총신), 장창래 목사(개혁진리), 정명환 목사(예장총회측), 정춘모 목사(합동개신), 정해술 목사(개혁합동), 정인석 목사(복음교회), 정해석 목사(합동장신), 조경행 목사(예 감), 조덕자 목사(예장연합), 조원희 목사(기 침), 조일구 목사(예 성), 조태영 목사(합동복음), 조현준 목사(개혁정통), 지경복 목사(예장개혁총회, 지석규 목사(합동선목), 지일환 목사(합동연합), 지창희 목사(합동개혁총회), 최길학 목사(기하성여의도), 최정봉 목사(개혁총연), 최형영 목사(나사렛), 하용수 목사(그교역협), 한흥직 목사(합동보수A), 홍기남 목사(합동진리), 홍성관 목사(피어선필동), 홍학식 목사(예장근본), 황연식 목사(예장호헌A) (가나다순)

분과위원장
강승삼 목사(한국예수선교회분과), 고성실 목사(한국기독교여성연합회), 김동청 목사(유소년분과), 김성숙 목사(선교분과), 김영면 목사(의료선교분과), 김영우 목사(WCC대책분과), 김응선 목사(재해재난구호분과), 김주락 장로(단군상대책분과), 김호윤 목사(인권분과), 노희석 목사(청년대학생분과), 박래창 장로(한국기독실업인분과), 박상훈 목사(교회발전분과), 박성민 목사(한국복음주의선교회분과), 박전복 목사(복지분과), 양성전 목사(한기총국제사업분과), 양인천 목사(해외한인기독교연합회분과), 엄진용 목사(스포츠분과), 유재필 목사(한국대중도서선교분과), 이근희 권사(여성분과), 이여백 목사(이슬람대책분과), 이재희 목사(교정선교분과), 이종득 장로(언론출판분과), 이준원 목사(자살방지대책분과), 이태선 목사(해외한국교회협의회분과), 정종진 목사(환경보전분과), 정초자 목사(경찰선교분과), 정해송 목사(다문화탈가정분과), 최바울 목사(기독교문화재단분과), 한상인 목사(예배분과) (가나다순)